

“동맹의 기준 준수하라”... 트럼프 정부 엄중 경고

심층분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동맹국 간의 협력 의제, 특히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정보·방첩 분야에서 미국이 이처럼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현 이재명 정부가 지급했던 미동맹을 떠받쳐 온 근원적인 ‘상호 신뢰’와 ‘보안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과의 정보 공유 및 상호 신뢰에 대한 언론사의 질의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standards of our decades-long alliance)’을 ‘준수(uphold)’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보 및 방첩(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에 관련해서”라고 단호히 밝혔다. 백악관 외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 역시 “민감한 정보의 공유는 ‘확고한 상호 신뢰



미국, 정보·방첩 분야 '동맹의 기준' 직접 거론... 심각한 신뢰 위기 상징
워싱턴발 외교관 비자 보류 사태부터 통상·안보 갈등까지 커진 ‘붉은 신호등’
“정부의 단일한 ‘기술적 해명’ 그만... 무너진 ‘상호 신뢰’ 부터 근본 복원해야”

(strong mutual trust)’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단순히 기밀 정보의 교류(정보)뿐만 아니라,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 탐지 및 기밀 유출 차단(방첩) 사안까지 별도로 지목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정보 관리 체계와 보안 의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깊은 불만과 우려를 여과 없이 드러낸 대목이다. 과거 특정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하던 차원을 넘어, 동맹의 최우선 전제인 ‘신뢰’ 그 자체를 공식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한미관계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백악관의 공식 경고는 최근

워싱턴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미 대사관 정보 요원 비자 보류 사태’와 직결되어 있다.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으로 파견될 국가정보원 소속 핵심 요원들의 외교관 비자(A-1/A-2) 발급과 신분 승인을 미국 정부가 수개월째 보류하면서, 신임 주재관 파견은 물론 임기를 마친 고위 주재관의 귀임 및 업무 인수인계마저 전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정원, 외교부는 “미국의 입국 절차 강화에 따른 개인 신상 관련 기술적(technical) 문제일 뿐, 한미 정보 협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교관 비자는 주권 국가 간 공식 파견 인력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고 최우선으로 처리되는 절차다. 특정

개인의 기술적 결함이 아닌 파견 인력 전체의 승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은 전형적인 ‘의도적 행정 지연’의 형태를 띤다.

상대국에 직접적인 외교적 단교나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행정적 소요 시간을 명목으로 비자 발급을 미룸으로써 강력한 외교적 불만이 나 경고를 전달하는 정교한 신호인 셈이다.

미국이 ‘동맹의 기준’과 ‘방첩’을 거론하며 비자 발급을 지연시키는 결정적 계기는 대북 정보 보안의 훼손에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공식 확인된 적 없는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 언급하자, 미국은 정보 출처 및 감시·위성 자산 노출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미국은 6개월 넘게 한국에 대한 대북 핵심 공간첩보(위성정보) 및 기밀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의 답변을 통해서도 공식 확인되었다.

김정인 기자

» 2면 ‘동맹 기준 준수 경고’로 이어집니다

‘12명 사망’ 하루만에 미사일...사우디 공항 또 피격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미사일 공격으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또 다시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리야드 도심 한복판에서도 강력한 연쇄 폭발음이 진동하는 등 후티 반군과의 난타전 속에 사우디의 국가적인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사우디 주도 연합군

에 따르면 이날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킹칼리드 국제공항 제4터미널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군은 현장 관찰 당국이 직접 진화 및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우디 방공망이 공항 인근 상공에서 순항 미사일 1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리야드 중심부와 북부 도심에서는 강력한 연쇄 폭발음이 최소 두 차례 감

지됐다. 리야드 북부 알아리드 지역의 한 주민은 폭발음 직후 새들이 놀라 날뛰었고 집 전체가 흔들렸다고 당시의 극심한 공포감을 언론에 호소했다.

사우디 민간항공공청(GACA)은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대한 새로운 공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또 관계 당국과 조율해 공항 시설에 대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안전 점검도 진행중이라고 항

공청은 덧붙였다. 이번 연쇄 공격은 전날 킹칼리드 공항을 겨냥한 미사일 타격으로 사우디인 4명과 방글라데시인 2명을 비롯해 미국, 이집트, 요르단 등 다국적 민간인 12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친 참사 이후 불과하루만에 벌어졌다.

최근 일주일 새 리야드 공항을 겨냥해 벌어진 세 번째 공습이자 10여 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인명 피해로 사우디 전역은 큰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이날 다시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어졌다.

당국은 피해 복구와 안전 평가를 위

해 리야드 공항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우디의 침략에 대응해 지난 24시간 동안 탄도·순항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네 차례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우디가 지난 24시간 동안 124차례 공습을 가했다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9일 저녁부터 세 단계에 걸쳐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항공 교통이 마비되고 공항이 완전히 폐쇄됐다고 주장했다.

» 관계기사 8면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흥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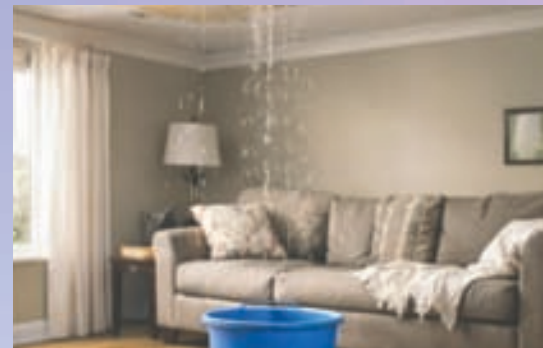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물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보험사에 클레임하기 전, 먼저 상담하세요!

주택 · 상가 · 렌탈 · 건물

주택부터 상가(비즈니스)까지, 보험 약관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한인 공인보험조정사가 함께 찾아 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 갑작스러운 피해로 보험 클레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
- ✓ 보험사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끼시는 분
- ✓ 어떤 항목까지 보상되는지 잘 모르는 분
- ✓ 보험사와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
- ✓ 상가 피해로 영업 차질이나 손실이 발생한 사업주
- ✓ 기존 클레임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토를 원하시는 분

대표 사고 유형

- 누수·물 피해
- 화재·연기 피해
- 폭풍·나무 전도
- 기계·장비 고장 (Equipment Breakdown)
- 영업 중단 손실 (Business Interruption)
- 동파·배관 파손
- 도난·파손
- 냉장·냉동 장비 고장

보험사는 보험사의 기준으로 클레임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바른길 보험조정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 약관을 검토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편”이 되어 끝까지 함께 합니다.

무료 상담 제공

- Licensed Public Adjuster
- 주택 · 상가 · 비즈니스 보험 클레임 전문
- MD · VA · DC · PA · NJ · TN 라이선스 보유



바른길 보험조정사
Right Path Solutions, LLC

☎ 240-659-9286

✉ Publicadjuster.kim@gmail.com 🌐 <https://rightpathllc.github.io/Website/korean.html>

대표 김민영

정치인 ‘살해 협박’ 일상화…중간선거앞 신변 ‘비상’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인들을 겨냥한 살해 협박 등 폭력 위협이 일상화하면서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까지 바뀌고

게 수천 건의 폭력 위협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최소 70명이 폭력 위협을 받은 것으로 확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경계 근무 중 인 의회 경찰 (AP=연합뉴스)

“상원의원 70%·하원의원 최소 185명 폭력 위협 경험”
후보 경호비 4배 급증…유세 방식 변화에 출마 기피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NYT가 정보 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와 법원 문서, 수사기관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미국 전역의 선출직 공직자들에

인됐다. 연방 하원의원도 최소 185명이 이 같은 위협을 받았다. 주지사 역시 최소 44명이 폭력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았으며, 정치인 본인뿐 아니

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까지 겨냥했다. 지난 1월에는 연방 의원 일부에게 "귀에서 귀까지 목을 베어버리는 것을 보고 싶다"는 음성 메시지가 남겨지는가 하면, 한 상원의원은 "당신을 살해

하겠다. 자녀들부터 시작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폭력 위협이 확산하면서 선거운동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후보들의 야의 유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행사장 사전 수색과 금속탐지기 설치, 참석자 몸수색 등이 일상화됐다. 일부 후보는 자신의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 담당자를 핵심 참모진에 포함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경호 비용도 급증했다. 연방 공직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출한 보안 관련 비용은 2017~2018년 선거 주기에 약 600만달러였으나, 이번 중간선거 주기는 지난 8월 1일 기준

최소 2천500만 달러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수십 명의 공직자가 자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를 전학시키거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식료를 구매하는 등 일상생활이 타격을 받은 경우들도 있었다.

NYT는 폭력 위협으로 양당 모두 후보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출마를 설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NYT는 정치 양극화와 온라인에서의 익명성 등이 폭력적 언사를 더 부추기면서 민주주의 제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업성 있어야 LNG 투자 가능”

한국 정부, 알래스카주 의원들에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금 중 500억 달러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발표했지만,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1일 알래스카 현지 매체인 알래스카 퍼블릭 미디어에 따르면 한국 당국자들이 지난 7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주의원들을 만나 알래스카 LNG 사업을 주도하는 글렌프론 그룹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 후에야 한국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빌 비엘레호프스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은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한국이) 상업적

으로 합리적인지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이라고 하더라"라며 "지금로서는 이 프로젝트에 한국의 투자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의 투자금 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해묵은 경제적 난관에 직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부터 한국 정부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알래스카 LNG는 미 멕시코만에서

생산되는 LNG에 비해 비용이 두 배에 달할 수 있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태평양 연안에서 추진되는 LNG 프로젝트보다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에너지컨설팅회사 포텐엔드파트너스의 제이슨 피어는 "지금까지 알래스카산 LNG에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구매자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 프로젝트가 최종 단계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접전을 벌이는 알래스카주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돼야 투자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 2면 ‘동맹 기준 준수 경고’에서 이어집니다

더욱이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로 국정원 관계자의 참석이 배제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미국 정보 당국(CIA 등) 및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 체제의 대북·대중 인식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깊게 퍼져 있다는 전언이다. 미국 측이 한국에 공유한 기밀 유출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 그리고 안보 라인의 대외 기조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동맹의 균열이 정보·안보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내 ‘쿠광 사태’ 조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 임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가 이어지

자,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의 미 기업 차별’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통상 갈등을 실질적인 비자 제재 수단으로 연계하고 있다.

여기에 존 물레나 마·중 전략경제특위 위원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중 정상외교와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 행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경제적 파열음과 대외 전략의 불일치가 안보 동맹 전반을 뒤흔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휘청일 때마다 현지에서 삶을 영위하는 250만 미주 한인 동포들이 체감하는 안보적 불안감과 입지 축소는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현지 외교·정보 채널의 마비는 곧 미주 한인 사회의 권익과 입지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머스크도 “우크라이나 지도자 필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인터넷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머스크 CEO는 11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

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한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의 게시물에 "동의한다. 우크라이나가 새 지도자를 구해야 할 시간"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 CEO는 전날 비슷한 내용의 다른 글에도 "젤렌스키가 도를 넘었다"라고 댓글을 썼다. 불과 한 달 만 전인 지난 8월 2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



에게 우크라이나 자유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전 통신을 스타링크 인터넷에 의존한다.

인명과 자유를 수호하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국민 간 관계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개인적 공로를 인정한다"며 머스크 CEO

“우크라이나 공격 멈추라”

미국, 정보 공유 중단 경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핵심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워코프 백악관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는 9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8시간 동안 열린 우크라

이나와의 회담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전달했다. 협상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측 인사는 FT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정유시설 공격에 미국 정보를 활용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충돌한 뒤 미국은 8일 동안 우크라이나와 정보협력을 중단한 적 있다.

워싱턴 날씨 (°F)

10월 12일(월) 72-59

13일(화)	81-64		16일(금)	78-56	
14일(수)	87-69		17일(토)	60-44	
15일(목)	74-65		18일(일)	59-44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센터빌 중앙장로교회 근처 5 에이커 전원주택 \$1,050,000 **특정** 최신 수영장, 차고 2, 방 3, 화 3

레스턴 싱글즈 셀러 클럽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799,000 **특정** 차고 2, 방 5, 화 3, 워드마운트 부엌

현역 럭셔리 타운홈 \$850,000 **특정** 차고 3, 방 3, 화 3

왓츠 앤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드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गुप्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 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트럼프 “우크라, 새 대통령 필요해”

‘경유딜’ 비판 젤렌스키에 반격... “중전 합의할 새 지도자가 가져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경유를 미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경유 거래'를 비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원하는 대로 하라. 다만 전 세계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는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고, 우리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고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했다면서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내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하는 게 뭔지 아나. (중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가져라"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30%를 잃었고 100만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 전쟁은 결코 시작돼

선 안 되는 전쟁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가 즉시 미국 및 세계 시장에 30만t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이후에도 추가 공급에 나서면서 총 480만t을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산 경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일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백악관 공동취재 거부 의혹 방송사 5곳 법무부 반독점법 조사

ABC·CBS 등에 자료 요구

위해 조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사 취재 제한에 반발해 백악관 공동취재를 일시 중단했던 주요 방송사 5곳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ABC, CBS, CNN, NBC, 폭스뉴스 등 5개 방송사가 백악관 공동취재를 거부한 행위가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이들 방송사에서 한을 보내 공동취재 운영과 CNN이 백악관 출입을 제한당한 일과 관련해 방송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통신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상업적 경쟁사들 사이의 집단 보이콧은 서면법(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이들 언론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백악관이 CNN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MS NOW 소속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하면서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고 비난했고, 백악관은 대통령 취재가 '원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BC와 CBS, CNN, NBC, 폭스뉴스 등 백악관 TV 공동취재단을 구성하는 5개 방송사는 해당 조치에 항의하며 공동취재를 며칠간 중단했다. 이들의 공동취재 중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는 장면 등 주요 행사 영상이 주요 방송사에서 송출되지 않는 일도 있었다.

NYT는 이번 조사를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계의 갈등이 취재 제한 문제를 넘어 반독점법을 동원한 법적 압박으로 확대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푸틴, 우크라전 긴장 완화 제안에 ‘이해’ 표명”

“푸틴, 이란전 해법 이란 측 구상도 트럼프에 전달”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 완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이해'(understanding)를 표명했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다.

10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에게 전날 저녁 이뤄진 양국 정상 통화와 관련해 "러시아 대통령은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이 제시한 일부 제안에 이해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대부분의 통화 시간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관련 사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조율 아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의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이란 측 구상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린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의·카스피해 환경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했다.

이 가운데 한 차례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푸틴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마쳤다"며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t 이상의 경유 연료를 공급하고, 11월 중 추가 50만t을, 그 직후엔 100만t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해 왔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에 따른 민심 악화를 수습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일부를 일시적으로 풀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에

백악관 ‘새 대변인’ 에 보수평론가 자카리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새 백악관 대변인으로 보수 성향 방송평론가인 케이티 자카리아(사진)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케이티 자카리아를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처음부터 충성스럽고 뛰어난 지지자였으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열렬한 팬이자 일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자카리아가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에 참여해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이티는 언론과 미국 국민, 우리 행정부와 훌륭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으로 네 자녀를 둔 어머니이기도 한 자카리아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그룹(TMTG)에서 선임 커뮤니케이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들어 크리스티 노먼 국토안보부 장관 재임 말기 몇 달간 국토안보부 대변인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또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와 뉴스맥스에 정치 평론가로 자주 출연해 왔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자카리아는 페퍼다인대와 이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워싱턴 정계에 발을 들였다.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엇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프렌즈 데이케어

“부모님은 행복하고 가족은 안심하는 프렌즈 데이케어에서 건강과 웃음, 친구를 선물하세요!”

800-350-3147 프렌즈 홈케어
571-424-7527, 7528 프렌즈 데이케어
8003 Forbes Place, Springfield, VA 22151
friends@friendshealthcareteam.com

영업시간 월 ~ 토 (주 6일) 오전 8시~오후 2시

내 돈은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을까요?

내 보험과 연금, 증권, 투자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보험부터 증권까지, 복잡한 금융 서류를 전문가가 함께 차근차근 읽어드립니다.

일시 10월 19일 (월) - 10월 30일 (금) * 평일
오전 9시 - 저녁 6시
* 상담 방식: 대면 상담 및 줌(Zoom) 미팅 모두 가능

장소 High Calling Financial 사무실
10505 Judicial Dr Suite 300, Fairfax, VA 22030

여러분의 금융 서류를
저희 사무실에서 함께 살펴드립니다.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QR 코드로 신청해 주세요.

Karen Ahn (캐런 안)
Financial Advisor
Certified Tax Advisor
High Calling Financial CEO

703-688-2645

10505 Judicial Dr. Suite 300, Fairfax, VA 22030
Email: karenahn@highcallingfinancial.com
Website: www.highcallingfinancial.com

허리케인 이사야스, 남동부 강타…2명 사망

최대 풍속 시속 188km …87만곳 정전 피해

허리케인 '이사야스'(Isaias)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0일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에 따르면 이사야스는 최대 풍속 시속 188km에 기록적 폭우를 쏟아내며 전날 밤 상륙한 뒤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등 내륙에 피해를 줬다. 현재는 최대 풍속이 시속 55km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했다.

이사야스가 이들 지역을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플로리다주 에스캄비아 카운티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며 집을 덮쳐 1명이 숨졌고, 앨라배마주 버밍엄에서도 나무가 주택 위로 쓰러지며 1명이 사망했다.

또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51분 현재 플로리다 43만8천911명, 앨라배마 30만7천743명, 조지아 12만1천191명 등 약 87만명의 고객이 정전 피해를 봤다고 CNN이 전력공급 추적 사이트인 '파워아우티지'를 인용해 전했다.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에 24.5cm의 비가 쏟아지는 등 폭우로 인해 주택 및 건물 파손, 도로 침수, 공항 폐쇄 등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풍속은 비교적 잠잠해졌지만, 기상 당국은 여전히 강풍과 폭우에 대비해야 하며 돌발적 폭풍 해일과 홍수,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크웨인 멀린 미 국토안보부 장관



허리케인 이사야스 강풍에 주택 위로 부러진 나뭇가지 (로이터=연합뉴스)

은 전날 밤 엑스에 플로리다와 앨라배마에 비상사태 선포가 승인돼 연방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대서양에서 발생한 이사야스는 2024년 밀턴 이후 미 본토에 2년 만에 상륙한 허리케인이다.

이사야스는 11일까지 미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을 지나간 뒤 12일에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총기난사범 사형 생중계 비판 속출

“미국이 이란인가”…여당 의원들, 국방부 계획 성토

미군 기지 총기난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생중계하겠다는 미국 국방부의 계획에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논란에 불을 댕긴 것은 미 국방부의 8일 성명이다.

2009년 미군 기지 총기난사로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니달 말릭 하산에 대해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이를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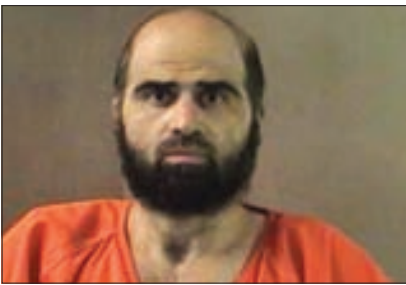
하산의 사형 집행일은 12월 3일로, 생중계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톱 톨리스 연방 상원의원은 엑스에 "하산은 사형에 처해져야 하지만 대중에 공개하고 생중계하는 것은 극도로 역겨운 일"이라며 "공개처형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같은 독재정권에서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존 커티스 상원의원과 오스틴 스콧 하원의원도 우려를 표명하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재고를 촉구했다. 유엔도 "정부가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또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처형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공개 처형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 역시 생중계 계획에 대해 편치 않은 심정을 드러냈다.



사형수 하산

밴스 부통령은 9일 취재진 문답에서 하산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형 장면이 생중계된다면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실제로 (생중계가) 될지 모르겠다. 지켜보자"라고도 했다. 밴스 부통령의 언급을 두고 워싱턴 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가 국방부의 공개 처형 결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보인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산에 대한 총살형이 정당하다면서 "그는 그런 처벌을 받을만하다"고 했다.

생중계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문제는 지금 결정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신과 군의관(소령)이던 하산은 지난 2009년 11월 미 텍사스주 후드기지에 근무하던 중 총기를 난사했다.

이 사건으로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하산의 사형이 생중계된다면 미국 당국이 사형 집행을 대중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된다고 WP는 전했다.

아마존·넷플릭스 ‘칼바람’ …직원 수백명 감원

베이조스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
넷플릭스 시청시간 성장세 ‘주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 등 미국 대형 기업에서 잇달아 감원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담당하는 스토어 부문을 중심으로 감원을 진행했다.

규모는 1천명 미만으로, 미국은 물론 인도, 영국 등지의 고객 서비스, 엔지니어링, 마켓플레이스 지원 등 여러 사업단위 직원이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아마존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에 일자리 3만개를 줄였으며, 이후에도 이처럼 소규모 인력 감축을 이어오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팬

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아마존이 인력을 과잉 채용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사람들은 집에 머물면서 주문을 늘렸고 우리에게는 멋지면서도 압박감이 있던 시기였다"며 "수많은 성과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인력을 너무 많이 늘리게 됐다"고 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집중도 요인으로 꼽힌다. 아마존은 AI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에 2천200억 달러(약 295조6천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역시 대규모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LA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넷플릭스가 전체 인력의 5%에 해당하는 800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투자 비용을 늘려왔지만, 올해 상반기 시청 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테드 서랜도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블룸버그 스크린타임 행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게임 사업 부문도 개편 중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8월 게임 스튜디오 나이트스쿨의 사업을 중단했고, 핀란드 헬싱키 소재 게임 스튜디오인 문루트도 폐업할 예정이다.

미 검찰, 베네수엘라로 ‘미국인 고문 혐의’ 로 추가 기소

미국 검찰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인 고문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8일 보도했다.

뉴욕남부연방지검은 이들이 집권 기



간 베네수엘라에 구금된 미국인 10여명을 불법으로 고문하도록 했다고 보고 마약테러 공모 등 기존 공소사실과 별개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는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폭력과 자의적 구금, 미국 시민을 포함한 수감자 고문에 의존하는 탄압

체제를 주도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히 했다"고 적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고문에는 전기 충격, 질식, 성폭력, 강제 탈의, 장기간 독방 격리 등이 포함됐다.

앞서 베네수엘라에서 투옥됐다가 2022년 풀려난 미국인 매슈 히스와 오스만 칸 등이 이 같은 고문을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엔비디아, AI 스타트업과 추가 투자 협상”

기존 8억달러 투자…인력 채용·기술 사용권 확보도 검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리플렉션 AI에 대한 추가 투자 또는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 엔비디아가 이러한 방안을 두고 초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지만,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는 대신 핵심 인력을 채용하고 기술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식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장기간에 걸친 규제당국

의 심사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엔비디아는 이미 리플렉션 AI에 8억달러(1조750억원)를 투자한 주요 투자자다.

리플렉션 AI는 2024년 구글 담마인드 출신 연구원 2명이 설립한 회사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자동화하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리플렉션 AI는 지난 5월 첫 오픈 웨이트(가중치 공개형) AI 모델인 '빔'(Beam)을 출시하며 중국 덩시크와 키미 등 저비용 AI 모델과 경쟁에 나선 바 있다.

미디어 중앙 구독 문의 703-281-9660



현스 홈케어 서비스
HYUNS HOMECARE SERVICE
Always With You!

30년 삼성 HR 경험,
이제는 홈케어 서비스와 함께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경험, 사람을 돌보는 마음 -
현스 홈케어”

어르신 상담
Senior Consulting Service

- ▶ 맞춤형 개인 간병 서비스 (치매 상담제공 - CDP)
- ▶ Medicaid 신청 및 각종 정부 지원 안내 (푸드 스탬프, 교통 지원 등)
- ▶ Senior Living 안내 (시니어 아파트, 그룹홈 등)
- ▶ 병원 및 약국 업무 대행 서비스
- ▶ 의욕기기 및 개인용품 주문 서비스



복잡한 롱텀케어 신청 도와 드립니다.

간병사 모집
Caregiver Recruitment

- ▶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 ▶ CNA 교육 지원 (시험 응시료 1회 지원, 취득 시 추가 혜택 제공)
- ▶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 ▶ 안정적인 근무 배정 및 경력 관리 지원
- ▶ 친절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TEL: 703.507.2492 Mr. 배 571.334.3963 Mr. 윤
FAX: 571.789.2234

Hyunshomecare@gmail.com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www.hyunshcs.com

한글날 100주년 MD ‘한글날’ 선포

아리랑USA 공동체... ‘훈민정음 반포580돌 기념행사’ 성황

아리랑 USA 공동체(회장 장두석)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글 세계화와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자 10일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에서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과 청소년 문화축제를 겸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파파스코 벨리 주립공원 내 무궁화동산에서 한주류사회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한인,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은정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목재 권명원 서예가의 한글세상 서예대전, 내빈 축하, 백일장 시상식, 선포장 및 감사장 수여, 주지사 표창, 한글날 노래제창, 그리고 난타공연, 태권도시범, 꼭두각시 공연, 풍물패 판굿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메릴랜드 정부는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선포해 한인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는데, 웨스 무어 주지사는 선포와 관련 “한글은 약 380년 전



한글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들의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문자 체계를 마련하여 일반 백성들도 보다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했다”며 “한국어는 미국인들이 학습하도록 장려되는 국가안보언어구상이 지정한 5대 전략 언어 중 하나인 동시에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하여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 주지사 한글의 날 선포문

은 박충기 행정법원이 장두석 회장과 문인석 총영사에게 전달했다.

앞서 장두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이라며 “오늘 행사에 여러 모로 협력을 아끼지 않은 주립공원 관계자와 한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한글의 우수함을 워싱턴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기자

매나사스 마사지 업소 6곳 ‘폐쇄’

성매매 혐의 3명 체포...경찰, 단속지역 크게 확대

버지니아주 매나사스에서 인신매매 및 성매매 수사와 관련해 마사지 업소 6곳이 폐쇄되고 여성 3명이 체포됐다.

9일 매나사스 시 경찰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전역에 있는 여러 마사지 업소와 주택에서 발생한 성매매 관련 범죄 신고에 대해 수사를 지난 6일 진행했다.

‘가짜 전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수사는 범죄 해결팀의 제보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수십만 달러의 현금과 성매매 기록,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 여러 명의 소재 파악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단속과 수사 결과 센터빌 로드 7의 ‘7스타 스파’, 매티스 애비뉴 ‘화이트 문 스파’, 매티스 애비뉴 ‘오리엔탈 마사지’, 디지스 로드 ‘오리엔탈 마사지 테라피’, 포레스트우드 레인 ‘마사지 테라피’, 서베이어 코트 ‘매나사스 마사지 테라피’가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안지 메이(44, 매나사스 거주) 여성은 음란업소 운영, 매춘, 성폭행 혐의로 2000달러 보석금을 내고 구금되었고, 안우 플릭(여, 65)과 스티븐 스마르(여, 60)는 각각 3000달러 보석

금과 보석금 없이 구금되었다.

체포된 여성들의 더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방지 단체인 ‘리셋 180(Reset180)’은 버지니아주 전역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며 “종종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버지니아주에는 555개의 불법 마사지 업소(IMB)가 있으며, 그중 262개가 북부 버지니아에, 169개가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리셋180은 이어 이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각 시설에서 단 한 명의 여성만 착취당했다고 해도 최소 252명의 여성이 갇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북부 버지니아 전역의 IBM에는 2000명이 넘는 여성이 노예처럼 갇혀 있다고 강조했다.

매나사스 경찰은 불법 성매매와 인신매매 단속은 인근 지역 수사당국과 협력해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천명하며, 정보를 가진 사람은 703-330-0330이나 703-257-8000으로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김성한 기자

VA한인회 ‘선관위 구성’...위원장에 이진우 부회장

9일 긴급이사회서 결정...일부 선거제직 개정 인준



앞줄 우측서 세번째가 이진우 선관위원장, 그 옆은 김덕만 회장.

버지니아 한인회(회장 김덕만)는 9일 애난데일 한인타운 소재 한식당 ‘설악가든’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제21대 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를 구성했다.

총 이사 31명 중 참석 16명이 참석하고 7명이 위임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진우 부

회장을 선임했으며, 위원에는 곽근면 부회장, 윤홍진, 이호동, 송은경 이사 등 5명(위원장 포함)을 선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선거 일정과 방식 등을 언론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가 마련한 2건의 안건상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선관위 구성이고, 두 번째는 선거회칙 개정이었는데, 회장 임 후보 등록서류에서 기존의 추천인 500명을 100명으로 낮췄다.

김덕만 회장은 긴급 이사회 소집과 상정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더해 참석 이사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특히 차기 회장 선거 진행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11월 ‘워싱턴 DC 새 시장’ 탄생 관심

선거 유권자가이드

오는 11월 3일 중간 선거에서 워싱턴 DC에 12년 만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뉴 리더십 시대에 관심이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36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연방 하원의원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날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일정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이 사전 현장 투표 기간이고, 11월 3일 선거일에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유권자 등록 및 정당 변경은 10월 13일이 마감이고, 우편 투표용지 신청은 19일까지 하면 된다.

우편 투표용지는 늦어도 11월 3일 오후 8시까지 투표함에 넣어 주어야 한

다. 그리고 사전 투표소는 해당 기간 동안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데, DC의 8개 선거구에 각각 투표소가 있다.

사전 및 당일 투표에서 이미 등록된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지만, 당일 등록 예정인 유권자는 워싱턴 DC 거주 증명서 지참이 필수다.

이번에 워싱턴 DC 유권자들은 새로운 시장,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시의회 의원 몇 명을 선출하게 된다. 범무장관과 예비 하원, 상원의원 직책도 투표 대상이다. 한인들의 관심이 많은 시장 후보로는 론다 해밀턴(무소속), 제니스 루이스 조지(민주당), 로버트 L. 그로스(주 승격 녹색당) 등이며, 공화당 후보는 없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방앗간 / 반찬 / 잔치음식 전문점

낙원떡집
케이터링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oming Soon

703-505-7766
7412 Stream Walk Ln, Manassas, VA 20109 (Oh! Market 안에 위치)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30년 이상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미락조 몰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국제범죄 생존자에 노벨상 바칩니다”

‘노벨평화상’ 필라이, 나치 법정서 소감…“박수 더 치면 트럼프와 상 나눠야” 농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85)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은 9일(현지시간) “이 상을 국제범죄의 모든 생존자들에게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필라이 재판관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소된 나치 지도부의 재판이 열렸던 독일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필라이 재판관은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내가 이 역사적인 법정에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그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호명됐을 당시 뉘른베르크포럼 행사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이었다.

그는 “우리는 국제법과 인권이 심각한 정치적 공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공격을 받는 모습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일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ICC를 “불량 기관”이라고 비난하며 모든 회원국에 탈퇴를 촉구했다. 필라이 재판관은 “정치 지



수상 소감 밝히는 나비필라이

도자들에게는 인권을 보호하고 전쟁을 자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을 접한 직후 “이거 농담이었지”라며 재치 있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아네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AI) 사무총장이 엑스(X트위터)에 올린 약 3분짜리 영상을 보면 필라이 재판관은 수상 소식을 접하고 동료들에 둘러싸여 수상을 축하받았다.

필라이 재판관은 “여러분이 만일 박

수를 더 치면 내가 이 상을 트럼프와 나눠야 할 수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러분의 갈채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왜냐면 대중이 '당신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상 받기를 원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감사하다”라고도 했다.

이는 스스로 노벨평화상을 받을만하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는 발언이다. 필라이 재판관은 “인권을 지지하는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하는 이 상황이 (평화상 수상을 접하기에) 적절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 관련 독립 국제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인권침해와 국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했던 일을 돌이키며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라고 보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보고에 대한 제일 주요한 반응은 내 용기에 대한 헌사였는데, 왜 진실을 말하는 데에 용기가 필요한지가 놀랍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 한달반만에 또 산사태

돌발홍수로 최소5명 실종



11일(현지시간) 네팔 중부 간다키주 고르카 지역에서 홍수로 범람한 부디 간다키강의 급류에 주변 주택 등이 휩쓸려나가는 모습

7천여명의 사망·실종을 초래한 네팔 대홍수로부터 약 한 달 반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네팔에서 또다시 돌발 홍수가 발생, 최소5명이 실종됐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 등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5분께 네팔 중부 간다키주 고르카 지역을 흐르는 부디 간다키강 수위가 평소보다 8.4m 급상승하는 등 강물이 크게 불어났다.

강을 따라 급류가 주변 지역을 덮쳐 지금까지 주민 5명이 실종됐고 주택 10여채 등이 유실됐다. 또 다리 4개, 통신탑 2개, 전신주 50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장비 등이 부서졌다.

홍수 신고를 접수한 현지 당국은 주변 지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SMS) 약 20만 건을 보내 즉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주민 수백 명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육군 당국은 또 헬기 4대를 투입해 여러 곳에 고립된 주민 40여명을 구조

했다. 이날 홍수는 고르카 지역 춤누브리 마을에서 산사태로 생긴 '자연 댐'이 부디 간다키강을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이후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는 토사 등이 섞여 불어난 급류에 마을과 다리가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지난 8월 26일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양국에서 최소 1천497명이 사망, 5천804명이 실종됐다.

‘호랑이 우리’ 들어간 남자 물려 숨져

영국 야생동물원



호랑이 우리에 들어간 남성 [엑스캡체]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우리에 들어간 남성이 호랑이에게 물려 숨졌다고 텔레그래프 등 현지 매체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낮 영국 동커스터의 요크셔 야생동물공원에서 한 남성이 호랑이 우리 안으로 뛰어들었고 이 남성에게 호랑이 한 마리가 접근해 공격했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바닥에 앉은 채로 접근하는 호랑이를 발로 차며 막다가 결국 호랑이에게 목과 가슴 등을 물렸다. 신고를 받은 응급구조대가 급히 출동했

으나 남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의 신원과 호랑이 우리로 들어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오후 1시 35분 한 남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후 호랑이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이란 “미국, 7가지 제안에 답변…아직 불충분”

“일부 사안 태도 불명확…문제 명확히 해야”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자국이 제시한 7가지 조건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 아직 불충분하다며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11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레자이 사무총장은 “지난 두 달간 미국은 파키스탄, 카타르, 심지어 이라크 등 세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 접근하며 우리 측에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약 2주 전 미국에 7가지 조건을 전달하면서,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어떠한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측에 ‘7일 신뢰 구축안’을 제안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동결자금 즉시 반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모든 전선에서 전투 중단 등 7가지 조건을 미

국이 이행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고 제안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우리는 미국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며, 그들이 먼저 모호하게 남겨둔 문제들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이 과거의 외교 패턴으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우리는 세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매번 미국은 협상을 저버리고 이란을 공격했다”며 “합의 안에 서명한 뒤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상대방에게는 당연히 다른 외교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합작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업체

일본에 1천명 규모 설계거점 구축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담당하는 3국 방산 합작 기업 에지윙이 내년 초 일본에 설계·개발 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마르코 조프 에지윙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닛케이에 내년 초 일본 아이치현에 설계 개발 거점을 개설하고 이후 1천명 규모의 인력을 고용할 방침을 밝혔다. 조프 CEO는 아이치현



3개국 합작 차세대 전투기 축소 모형

거점의 인력 중 약 절반을 일본 현지 인력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지윙은 일본·영국·이탈리아 등 3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서 실제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일본항공기산업진흥주식회사(JAIEC), BAE시스템스(영국), 레오나르도(이탈리아) 등 3국의 주요 방위산업체가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에지윙은 3개국에 각각 글로벌 설계·개발 거점을 마련한다. 지난 9 일에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거점을 개

설했고 영국 와튼에도 비슷한 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조프 CEO는 각 거점이 효율성을 위해 각기 다른 서브시스템(세부 계통)에 특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리노 거점에는 구조·시스템 설계, 엔진 부품 설계 등 엔지니어링 관련 전문가들이 근무할 예정이며 이후 항공전자기기 등의 서브시스템 전문가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조프 CEO는 전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전화주세요!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서울로 가는 새로운 선택 에어프레미아

워싱턴 D.C. (IAD) ↔ 서울 (ICN)

주 4회 (매주 월/수/금/일) 운항

미주노선 최대 20%할인

할인 코드 : LAX4YEAR

프로모션 일정 : 10월12일(오전10시) ~ 10월19일 (*8일간/한국시간)

탑승기간 : 2026년 10월12일 ~ 2027년 8월 31일

발권채널 :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동계 스케줄 : 2026.10.25 ~ 2027.03.27

편명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요일
YP136	워싱턴 (IAD)	서울 (ICN)	00:20+1 (10/25~31) 23:20 (11/1~3/13) 00:20+1 (3/14~3/27)	05:10+2	월/수/금/일
YP135	서울 (ICN)	워싱턴 (IAD)	20:50	21:20 (10/25~31) 20:20 (11/1~3/13) 21:20 (3/14~3/27)	월/수/금/일



 AIR PREMIA

꼭 필요한 것만 담은 프리미엄, 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우디 리야드공항 피격, 사망 12명…미국 “개입 검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10일(현지시간) 또다시 공격받아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다.

이번 공격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걸프 아랍국가에서 발생한 공격 가운데 가

혔다. 지난 5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의 공항·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격을 발표한 이후 킹칼리드 공항이 공격받은 것은 이날이 최소 세 번째다.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사전 경고 없이 발생했으며 사우디의 위협 경보

그는 이번 공격이 예멘의 민간 기반 시설 등을 겨냥한 사우디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전 세계가 예멘의 공항과 항구,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병원과 시장이 공격받거나 피해를 보는 안 되는 민간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는 모습. 이날 킹칼리드 공항에서는 사우디 국적 민간항공사 기장 1명을 포함해 3명이 사망했다. [AP=연합뉴스]

이란전쟁 이후 걸프국 최대 인명피해…공항 3·4터미널 시설 피격 후티 “사우디 공습에 대한 보복”…공항 운영 중단·항공편 줄취소

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례로 파악된다. 사우디 동부 담맘의 국제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지는 등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이 사우디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 항공청(GACA)은 이날 킹칼리드 국제공항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GACA는 사망자 중 4명은 사우디인, 2명은 방글라데시인, 그리고 미국,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수단, 이집트 국적자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고 밝

시스템에서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항에 있던 한 목격자는 폭발이 발생한 뒤 공항 내부에 여러 명이 다친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상자는 공항 밖 하늘에서 무언가 날아가는 것을 목격한 직후 탑승구 인근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사일이 공항의 제3·4터미널이 있는 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후티 고위 관계자인 무함마드 알부카이트는 뉴욕타임스(NYT)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GACA는 공항 시설의 피해 상황과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공항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리야드로 향하던 항공편은 모두 다른 공항으로 우회하거나 취소됐다.

쿠웨이트항공과 에티오피아항공, 카타르항공 등도 리야드 노선 운항을 잇달아 취소했으며, 일부 항공편의 운항 중단은 1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사우디 동부의 주요 도시 담맘에서도 공항 인근에 발사체가 떨어졌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투르키 알말리키 대변인은 11일 새벽 엑스(X)를 통해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 인근에 발

사체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후티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사우디 중부 알카지 지역에서 요격해 파괴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5일 킹칼리드 공항과 서부 해안 도시 라브의 아랍코 정유시설, 남서부 아브하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이후 사우디 주요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7일에는 리야드와 아브하 공항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으며, 8일에는 킹칼리드 공항을 겨냥한

두 차례 공격으로 사우디 항공사 기장 1명을 포함해 3명이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우디의 후티 공격에 미국이 동참할 계획이 있는지는 질문을 받고 "그럴 수 있다. 검토해보겠다"며 "최근 공격에 관해 방금 알게 됐으니 결정을 내리겠다. 매우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후티를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벌인 바 있어 이번 사태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사나·리야드 공항 피격”…사우디-후티 ‘난타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 간의 무력 공방이 꼬리를 무는 '피의 보복전'으로 치닫고 있다.

반군이 운영하는 매체 알마시라TV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밝히지 않은 채 공격의 배후로 사우디를 지목했다.

반군 측 발표 직후 AFP 통신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 중심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강력한 폭발음이 최소 2차례 울렸다고 전했다.

리야드 북부에 거주하는 주민 3명도 또 다른 폭음을 들었다고 제보했다.

리야드 북부 알아리드 지역의 한 주민은 통신에 "폭발음 직후 새들이 놀

라 날뛰었고 집 전체가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의 제4터미널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연합군은 이번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장에 배치된 관할 당국이 직접 화재 진압 및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심장부를 겨냥한 맹공은 견줄 수 없이 격화하는 형국이다.

후티 반군은 전날에도 사나 공항이 공습받았다고 발표했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도 킹칼리드 공항을 겨냥한 미



10일 사우디 리야드의 킹칼리드 공항 내부에 잔해와 파편이 흩어져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사일 공격의 배후로 후티 반군을 지목한 바 있다.

‘후티 공세’에 찢찢매는 사우디

‘비전 2030’ 투자유치 ‘먹구름’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전방위적인 무력 공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가 핵심 인프라가 잇따라 타격을 입고 방공망 한계가 노출되면서 실제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글로벌 자본 유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우디의 굼직한 국제 행사들은

이 직격탄을 맞으며 차질을 빚고 있다.

피격 이후 리야드 공항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11일 기준 항공편의 약 85%가 취소되는 물류 대란이 겹쳐 정상적인 대면 행사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사우디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은 연간 1천억 달러(약 135조 원)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의 맹공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사우디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투자 위험도가 급등하고 있다.

국제사회, 후티 리야드공항 공격 규탄

유엔총장 “깊은 충격”

국제사회는 1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공항을 공격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를 낸 예멘 후

티 반군을 일제히 규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리야드 공항 공격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민간인과 민

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러한 공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후티 반군의 리야드 공항 공격을 "위험한 긴장 격화"라고 규정하며 "민간인을 향한 '살인 공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맹비난

했다.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어 "이란의 대리 세력에 의한 이러한 공격은 이 지역을 폭력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EU는 사우디와 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국 정상과 외교 당국도 이번 공격을 일제히 비판했다.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엑

스(X·옛 트위터)에서 "민간인과 주요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엑스에서 리야드 공항 공격을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하며 "캐나다는 무모한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1. 맥클린 Rotonda 콘도 \$489,000
2BR / 2BA-Spring Hill ES / Cooper MS / Langley HS
남향, 허드슨 주양 옥실 업데이트, Samsung
스마트 가전, 게이밍 커먼니티, 실내 야외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테니스 피트니스, Greenboro Metro, The Boro,
Whole Foods, Tysons Corner 인근

2. 찬들리 하이 타운홈 \$819,500
넓고 밝은 오픈옥실/책상 거대한 오픈 플로어 플랜,
허드슨 배리어(그레이트)이트 주방, Trex 데크 & 울타리
있는 뒷마당, 풍부한 자연재림과 실용적이고 넓은 공간,
편리하고 쾌적한 주택, 침실 4개 / 욕실 3.5개 / 222
넓은 3층 법피어트 구조, 지하층 4방 침실+욕실

3. 애쉬번 럭셔리 싱글 같은 타운 \$889,000
2015, 방 4, 화 3.5, 차고 2, 3,66sqft,
전체마루, 최고 학교 Rock Ridge HS,
RT 50/66/267, 딜러스공항, 교통 2지

4. 애난데일 싱글 \$720,000
애난데일 중심,
방 3, 화 2, 0.23acre
넓은 마당/창고, 교통편리,
생활 편의시설, 495/95/Backlick Rd

5. 게인스빌 콘도 \$425,000
3BR / 2.5BA, 1,788 Sq Ft 차고 1
집 전체 LVT Flooring, 마루
I-66 & Rt. 29, RT15 접근 편리,
쇼핑·식당 가까운 좋은 위치

6. 찬들리 하이 싱글 \$1,379,000
방 5, 화 4.5, 차고 2, 큰데크,
최고 학교, 잘 관리된 집
새 지붕 (2018),
HVAC 교체, 실내 새 페인트, 주방 가전 업데이트,

7.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Sold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차고 3, 선물,
고급 조명, 트레이 찬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9. 알디 싱글 \$869,000
2004년, 방 4, 화 2.5, 차고 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보증금 방식으로 서울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법

서울 도심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 버지니아·워싱턴DC·매릴랜드 한인들 위한 현지 상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도 국적과 관계없이 입주... 전세권 설정·신탁계좌 예치로 입소보증금 보호
한국 부동산세 부담 없고 최소 거주 기간도 없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생활에 맞춘 시니어 레지던스



▲ 서울강서구 마곡지구 VL르웨스트. 분대건설이 시공하고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운영을 지원하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실 규모다.

은퇴 후 한국 생활을 고민하는 미주 한인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집'이다. 한국에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뒤따르고 주택 수에도 산정된다. 1년 중 몇 달을 미국에서 보낸다면 비워 둔 집을 관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서울강서구 마곡지구의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는 이 고민에 대한 대안으로 꼽힌다.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운영을 지원하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실(전용 51~149㎡) 규모다.

가장 큰 특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입소보증금을 맡겨 거주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한국 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주택 수에도 산정되지 않는다. 보증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세권 설정등기로 보전되고, 시행사 법인 계좌가 아닌

신탁계좌에 예치된다.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계약할 수 있으며 위임 계약도 가능하다.

최소 거주 기간 규정이 없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재외동포에게 부담이 적고, 1개월 이상 장기 부재를 신청하면 그 기간의 기본 식대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포공항까지 차로 5분, 인천공항까지 공항철도로 약 41분이며 미국에서 오는 가족은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안에서는 영양사가 구성한 식단으로 하루 세 끼를 제공하고 하우스키팅·컨시어지 등 60여 가지 생활 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트니스와 스파, 골프연습장, 시네마, 북라운지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가 지하 1·2층에 모여 있고, 건강관리센터와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 이대서울병원·보바스병원 협약으로 의료를 뒷받침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서울식물원이 있다.

01. 입주 자격

국적 무관·시민권자도 가능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도 계약과 입주가 가능합니다. 위임 계약도 가능하며 입주 자격 등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안내합니다.

02. 보증금 보호

전세권 설정·신탁 예치

입소보증금은 전세권 설정등기와 신탁계좌 예치로 보호되며, 계약 종료 시 공제 사유 정산 후 반환됩니다.

03. 한국 세금

취득세·재산세·종부세 없음

소유가 아닌 보증금 거주 방식이라 한국 부동산세가 없고 주택 수에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04. 미국 할래

최소 거주 기간 없음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생활에 맞춰, 1개월 이상 장기 부재 시 기본 식대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05. 교통·입지

김포공항 차로 5분

5·9호선·공항철도 트리플 역세권, 인천공항 약 41분. 서울식물원이 단지 바로 앞입니다.

06. 케어·서비스

호텔식 서비스·24시간 응급

영양사 식단 하루 세 끼, 하우스키팅·컨시어지, 이대서울병원·보바스병원 협약.



4개 동이 둘러싼 중앙 정원 '락가든'



영양사 식단을 제공하는 단지 내 레스토랑



입주민 전용 수영장



호텔식 컨시어지가 상주하는 로비



입주민 커뮤니티 '살롱 드 VL'



엘티케어센터·맞춤 운동

VL르웨스트 버지니아·DC·매릴랜드 공식 파트너

상담 · 방문 투어 · 계약 안내 · 한국어 상담



장미원

Miwon Chang 장미원 부동산

Certified Real Estate Broker - CIPS - SRES - VA Broker #0225222075 - DC Broker #BR40000207 - MD Broker #661638

공인 국제부동산 전문가(CIP5) · 시니어 부동산 고객 전문(SRES) · Licensed in VA · DC · MD

Tel 703-486-6082
Realtormiwon@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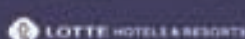
카카오톡 상담 (RE1miwon)



상담 바로가기

VL르웨스트 미주 공식 분양 대행사 · Global Frontier Assets (GFA)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 16 · 전용 51㎡~149㎡ · 총 810실 · vlwestglobal.com · contact@globalfrontierassets.com



GFA 미주 본사

213-700-9086

국감 2주차 여야충돌 격화 예고...김지용 청문회에 기류 복잡

법사위 현재·행안위 경찰청·외통위 주미대사관 등서 난타전 전망

이재명 정부 2주차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각 상임위를 무대로 한 여야의 대립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경찰청, 주미한국대사관 등의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 검찰 개혁, 한미 동맹 관계 등을 연결고리로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나아가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함께 국감 와중에 진행되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당 내부의 미묘한 긴장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국정감사 2주차에도 끊임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 점검을 계속한다.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감사원(12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3일), 법제처·군사법원(15일), 서울고등법원(16일)에 대한 감사에서 대법

관 후보자 제청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제청청 요구에 대해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13일 현재 대상 국감에서 관련 공방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제청청 거부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12일), 경기도청과 경기 남·북부 경찰청(13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15일) 등에 대한 행정안전위의 국감에서는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따라 경

찰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에 대한 여야의 질의와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허거위지면서 여성과 약자 등이 범죄 피해자가 된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압장, 부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이 역효과만 불러올 거라며 공세를 펼 것이라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목표인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이 검찰 권 남용이라는 폐해를 없애려는 뜻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찰에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지사가 나오는 만큼 여야가 상대 진영 단체장을 집중 견제할 것으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본인에 대한 발언권 정지에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로 보인다. 경기의 경우 추미애 지사가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 대통령의 인사에 연일 비판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심사다.

외통위의 재외 공관 국감에서는 주미 한국대사관(현지시간 12일) 등이

주목되는 일정이다.

한미 외교·안보채널간 소통에 이상 기류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 상황에서 미주반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정 의원이 국감 일정을 막판에 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한미 관계 이슈가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현장행보 강화 모색하나...김민석 '최저 지지율' 고심

취임전 대비 진보·중도층 지지 3~4%p ↓... '분열 원인' 지적

취임 두 달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지지율을 놓고 11일 고심에 빠졌다. 8·17 전당대회 때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p) 제고'를 공약했으나 오히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당장 반등의 기회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당내에서는 전대 때 표면화된 여권 내 분열이 검찰 개혁 이슈 등으로 최근에 더 심화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 시각이 많다. 나아가 김 대표가 지나치게 일정과 메시지가 많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도 메시지를 다소 줄이면서 현장 행보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의 9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주전인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p) 하락한 35%를 기록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비교하면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말(33%)에 근접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경우, 이 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37%를 기록하면서 직전 조사와 동률이었으나 부정평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마를 만지고 있다.

가는 여론이 높기는 했지만 수치상으로는 5%p 낮아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달 30일자 조사에서 민주당은 2주전 조사와 같은 36.3%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37.7%로 이전 조사보다 4.5%포인트(p) 오르면서 KSOI 정치조사에서 오차범위(±3.1%p) 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처음으로 앞섰다. 이런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는 여권 내 분열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가 많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후 공격적으로

정치 일정을 진행하고 메시지를 내왔으나 최근 변화조짐이 일부 감지된다.

가령 그는 지난달 11일 충북 현장 최고위에서는 모두발언에서 4천500자 정도를 발언했으나 지난 7일 최고위에서는 590자만 발언하는 등 최근 메시지 분량이 줄었다. 나아가 김 대표는 앞으로는 현장 행보와 당내 소통에 더 무게를 둘 방침이다. 지금까지 당의 구조와 운영방식의 전면적 개편 등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최근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보완하며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당 대표는 결정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는 만큼 다른 의견을 좀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지금 당 대표가 좀 더 진심을 갖고 호소하고 설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자신의 지지율 공약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당 하락세에도 국힘 '지지율 홍보'

반사이익에도 한국갤럽 조사 6개월째 20%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및 정세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당청이 부동산 정책, 인사 문제, 경제 문제 등의 여러 이슈로 고전하고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서는 내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 무당(無黨)층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시간 문제라는 시각과 함께 장동혁 지도부가 원인이라는 엇갈린 진단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6개월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꾸준히 머물고 있다.

4월 2주에 20%였던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주차에 29%까지 반짝 상승했다 이후 20%대에 머물렀고, 9월 첫 주 30%를 찍었다가 10월 2주차 26%까지 다시 내려왔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인 점을 고려하면, 여당 지지에서 이탈한 이들은 물론 이른바 '중도·무당

층'이라 불리는 이들도 제1야당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생·청년 드라이브를 걸면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청년정책기획단을, 이달에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다음 달에는 1호 청년 정책 공개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지도부는 최근 정책 면에서 여당의 변화를 끌어내는 등 대안 정당으로 면모도 보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한 당권파 의원은 11일 "미디어에 출연해 맨날 여당 욕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전방위로 알릴 것"이라며 "12월쯤에는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외면을 받는 것은 강성 우파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기 위해 장외집회 등에 집중하면서 합리적 대안 세력이란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 메디케어
여행자 보험, 메디케이드
각종 의료보험, 캐시플랜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뇌졸중/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박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첸틀리 지역]

엘리콧시티 · 락빌 2개 지점

편한나라 척추신경전문병원

편한위치 · 편한치료 · 편한척추



www.carefreelandusa.com



Dr. 조규창

- 상문고 졸업
- 대전보건대 졸업
- 전 Occupational Therapist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Certified in Activator Method Technique
- Certified in Active Release Technique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
- Maryland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Magna Cum Laude (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 과정 전액 장학생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 Laude from Life Univ.
- Certified in Cox Technique, Low Back Pain
- Certified in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aryland
- Completion of Asian Body work Therapy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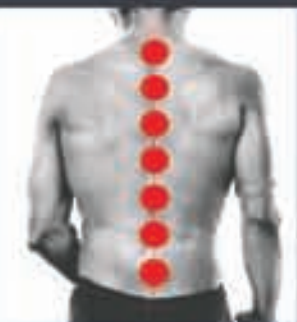
주요 치료 영역

자동차 사고 후유증



목·어깨·등 통증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직

척추 디스크 통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좌골신경통

두통, 목, 허리 통증



만성 두통
목/허리 통증
신경 압박 통증

손, 발 통증 및 저림



손목 터널 증후군
손/발 저림
관절 통증

어깨 결림 및 통증



오십견
회전근개 통증
어깨 결림

만성 근육통



근육 피로
만성 통증
근육 불균형

취급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치료 항목

-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 통증 치료 (Dry Needling)
- ✓ 마사지 치료 (LMT 라이선스 소지자)
- ✓ 체외충격파 치료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 ✓ 신체균형강화 장치기법 (Body Balance Enhancement Device)
-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교통사고 후유증치료

빠른 치료가 후유증을 막고, 빠른 회복을 만듭니다!

엘리콧시티 (410)480-2331
3201 Rogers Ave. # 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279-6960
611 Rockville Pike #150
Rockville, MD 20852

www.carefreelandusa.com

나경원 우크라이나에 ‘감사서한’ 여야 공방

민주 “매국행위 중단하라” 나경원 “참 지독한 친북정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나경원의원은 10일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 나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서한을 보낸 것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을 향해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를 사지에 버리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포로들의 ‘생명줄’을 걱정한다면서 정작 그 안전을 지킬 약속은 외면하는 것이 나 의원이 말하는 인권이냐”며 “인권을 앞세워 포로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기만을 그만두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 의원을 향해 “배은망덕 대한민국을 모독한 젤렌스키에 감사 서한이라니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면서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잇따라 페이스북 북에 글을 올려 “북한군 포로송환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감사 서한을 보내니 민주당 의원들이 자폭부대처럼 앞다투어 달려든다”면서 “대한민국 의원들 맞나. 북한 조선노동당 의원들인가. 왜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정부의 송환 조치에 따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가 귀국하자 “외교적 자해 행위”라며 “이 기막힌 외교 갈등은 오직 북한 김정은을 향한 보여주기극에겐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군이 탈북해 대한

민국으로 오는 것을 결코 환영하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비굴한 굴종의 메시지를 평양에 바친 것”이라며 “이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그 어느 나라가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돕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정권은 제2, 제3의 북한군 포로 송환을 원천 차단하는데 완벽히 성공했다”며 “북한의 심기경호를 위해 동포들의 생명을 외면하는 이재명 정권, 참으로 지독한 ‘친북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에서 유실돼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최근 인천 강화군 주문도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바다까지 지뢰밭으로 만드는 북한에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하려 하느냐”면서 “대북 방송,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등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야말로 무책임하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을 위험과 고통에 빠뜨리고, 실효성마저 없다는 건 윤석열 정부 때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연평균 21만가구, 전기세 미납 사용 제한”

김승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사용을 제한받는 가구가 해마다 20만호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사진)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 가운데 전류제한을 받은 가구는 연평균 21만5천여 호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1만9천호, 2024년 23만호, 2025년 19만8천호로 집계됐다. 올해 1~8월에는 9만9천호가 전류제한을 받았다.

전류제한은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에 단전 대신 월 최대 475kWh(킬로와트시)까지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일반 가구는 3개월, 취약계층 가구는 6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한다.

같은 기간 전기요금 연체 부담도 커



으로 21.1%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금액은 137억원에서 318억원으로 늘었고, 연체 가구 1호당 연체액도 3만2천원에서 6만2천원으로 두 배에 달했다.

한전은 연체 가구 지원을 위해 복지할인, 분할납부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20만 가구 안팎이 전류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실효성 있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특검, 투표용지 공개검증 조율

29일 유력…실제 표 하나씩 검수하는 절차 계획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사진)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검증을 위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불거진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검증 과정을 언론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곳으로, 이곳을 봉쇄하는 시위가 장기간 열렸다.

당초 시위대는 투표용지 부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시위하다가 이후 경찰이 투표함을 개표소가 차려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가져가자 따라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특검팀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실제 표를 하나씩 검수하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검증일로는 이달 29일이 유력하지



만, 향후 관계 기관들과 협의 과정에서 일정 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공개검증을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검팀의 증거 검증 계획은 당초 ‘재검표’라는 용어로 알려졌다. 재검표는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어 투표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이번 증거 검증과 성격이 다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대외비 문서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 문서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로 추정되는 문구가 반쯤 노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특검팀이 수사 상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선관위 특검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에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감 지나면 2심…오세훈 ‘정치적 운명’ 가를 2주

사퇴설 돌며 거취 관심…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

‘명태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15일과 19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2심 선고를 앞두고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군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청

했다. 다만 최근 같은 재판부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은 오 시장 측에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을 의뢰하거나 협의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같은 재판부가 정황보다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엄격히 따졌다는 점에서 오 시장 측은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 시장이 김씨의 여론조사 비용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대납을 지시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심이 명씨 진술과 주변 정황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것도 항소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변수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제공받기로 한 의사 합치가 핵심이었다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실제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만큼 오 시장이 이를 인식하거나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새 녹취의 증명력, 오 시장과 비용 대납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추방재판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뱀뱀)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당신의 재정은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UNI 전문가들이 **40**여개 회사를 비교하여 분석한
맞춤형 재정 설계를 통해
고객님과 가족 모두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Lori Moon 문 로리	Linda Lee 이 린다	Unsin An 안은신	Eunice Lee 이은경	Kyung Ja Oh 오경자	Minji Park 박민지	Miwon Chang 장미원	Shin Hyung An 안신형
District Marketing Director 703-895-7648	Marketing Director 443-515-8522	Marketing Director 804-464-3662	Senior Agent 703-855-0929	Senior Agent 443-690-4290	Field Agent 410-353-6402	Field Agent 703-486-6082	Field Agent 804-690-0323



생명보험 | 개인 은퇴연금 | 비즈니스 절세 상품 및 은퇴연금 | 재산 상속 플랜 | 학자금 준비 | 건강보험 | 재정교육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https://uniwfm.com	 703.865.8788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804.464.3662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	---	---	---

검찰청 폐지 후 경찰 분위기 ‘폭풍 전 고요’

대형수사 경쟁 전망도...일선 경찰서는 “업무과중 우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 지 일주일 만에 흐른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당장 큰 변화는 없다"는 반응과 "곧 사건이 밀려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 2일 문을 닫은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들이 아직 일선 경찰서에는 본격적으로 이송되지 않은 상황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경찰에 '사건 쓰나미'가 올 것이라는 기존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는 '폭풍 전 고요' 상태에 가깝다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 평가다.

한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관은 "당장 배당되는 사건이 크게 늘거나 하진 않았다"며 "형소법 개정 이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공소청으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 사건도 몇 개 없다"며 "한두 달 지나 봐야 (업무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도 "수사체계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수본부장 등 전국 경찰 지휘관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

개편 이후 각 과에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평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사건이 대거 이송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아직 지역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이 과도하게 이송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일선 경찰서 업무 과중을 우려한 경찰청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에 '사건을 한꺼번에 넘기지 말고 순차적으로 넘길 것', '90일의 경과 기간 안에

공소청 검사가 최대한 많이 사건을 처리해달라' 등을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검찰에서 제안을 수용했다"며 "만약 사건이 한꺼번에 과도하게 이송되면 그때 다시 공소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 본청에 따르면 전국 공소청의 9월 말 기준 미제는 18만6천307건이다. 공소청은 이 가운데 검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하던 사건 중 90일의 경과 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우선 경찰에 넘기고 있다.

주 우크라이나 대사 귀국

‘북 포로 공개’ 갈등 이어질 듯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가 10일 오전 귀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하고, 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침에 따라 박 대사를 소환하기로 지난 8일 결정했다.

정부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 파기는 실수였다고 치더라도 이후 보인 태도가 상황을 계속 악화시켰고 이에 대사 소환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외국 주재 대사를 항의의 뜻으로 소환한 것은 2008년 주일본대사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외교부 제공]

소환 이후 19년 만이다.

정부는 대사 소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양측의 외교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연수 검사 1인당 평균 6천800만원

올해만 3명 비용환수... 최대 2억원 지원받아

최근 5년간 해외 훈련을 다녀온 검사 1인당 평균 6천8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훈련을 다녀와 놓고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퇴사한 검사는 같은 기간 10명이 넘었다.

11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 초까지 해외 훈련을 다녀온 검사 422명에게 집행된 훈련비는 1인당 평균 6천857만원이었다.

법무부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라 검사들에게 해외연수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해왔다. 훈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에서 2년도 가능하다.

연도별로 보면 해외훈련 대상자는 2021년 75명, 2022년 78명, 2023년 76명, 2024년 66명, 지난해 77명이었다. 올해만 해도 50명이 해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됐다. 검사들이 훈련받는 국가로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미국(289명)이었다. 이외에도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호주 등 국가에서 해외훈련이 이뤄졌다. 해외훈련을 간 검사들에게

는 체류비와 학자금 등이 주어지는데, 지난 5년간 한 명이 받은 지원금은 최소 1천347만원에서 최대 2억2천400만원에 이르렀다.

2억2천여만원을 받은 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아이비리그 로스쿨에서 해외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은 2년이다. 해외훈련을 받은 경우 통상 휴직 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의무 복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검사는 꾸준히 있었다.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검사는 2021년 2명, 2022년 4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2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4명이었다. 이들 중 13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가 이뤄졌지만, 1명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4명이 환수 대상에 올랐다. 이 중 3명에 대한 지원금 환수가 완료됐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평균 7천만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현재의 방만한 해외연수 사업 규모부터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서 14년 복역하고 군 입대?...법원 “면제 대상”

병무청 상대 소송...서울행정법원 “국내법 해당 범죄면 전시근로역”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후 가족들과 미국으로 떠나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0년 미국에서 강도죄 및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 후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에 입국한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이나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수형자에 해당한다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만 병역 감면처분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병역법과 시행령에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수형자에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병역법에 '국내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형자를 현역 복무에서 배제하는 취지가 복무기간 유지와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 방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병역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수형자이송법을 고려해 국내법에 의해서도 구성되는 범죄사실로 자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사증후군 사망위험도 ‘빈부 격차’...저소득 남성 35% 높아

대사증후군 환자의 사망 위험에서도 빈부 격차가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같은 대사증후군을 앓더라도 저소득층 남성은 고소득층에 비해 사망 위험이 35% 높았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희택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건

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2009~2010년 대사증후군으로 분류된 성인 8만3천786명을 약 10년간 추적 관찰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중성지방 상승,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콜레스테롤 저하 등

5개 위험 요인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를 칭한다.

연구팀은 대상자를 건강보험료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이들의 경제적 지위와 사망 위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와 체질량지수(BMI),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을 보정한 결과 저소득층 남성의 사망 위험은 고소득층 대비 1.35배에 달했다. 중간 소득층 역시 고소득층 대비 사망 위험이 1.23배였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저소득층 여성의 사망 위험은 고소득층 대비 1.25배, 중간 소득층 여성은 1.17배였다.

연구팀은 이미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지위에 따라 생존율에 격차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낮은 경제적 지위로 인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고,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 등이 사망 위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모든 부동산 매물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매매 · 임대 · 리스팅 등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집 수리해서 팔아드립니다!

집이 오래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집도 걱정하지 마세요. 수리부터 판매까지 믿고 맡겨주십시오.

- 필요한 수리 · 보수부담
- 정리 및 준비
- 사진 · 마케팅
- 매물 등록 및 판매까지

낡고 오래된 집도 걱정하지 마세요.

- 어떤 집 상태든 OK · 어떤 지역이든 OK
- 주책 · 콘도 · 다운하우스 등 모든 매물 상담 가능
- 빠른 매물 등록 및 적극적인 마케팅
- 고객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

비키리 부동산 Amplus Realty LLC info@amplusrealtyle.com 전화 문자 703-231-5572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바이어 환영 매물이 10개든 100개든, 고객님의 원하는 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관리하겠습니다.

“말려만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Periodontal Surgery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Veneer Lumineers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아름답고 눈물겨운 우리글”…10월 9일에 스민 100년의 기억

아름다운 우리글, 짙은 우리글, 눈물겨운 우리글, 죽순같이 자라소서. 해빛같이 퍼지소서. 아담스런 우리글.”(잡지 '한글' 제2권 제9호 중)

1926년 조선어연구회(이후 조선어학회)에서는 논의가 한창이었다.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아 준비하는 기념행사 때문이었다. 잡지 '신민'(新民)에는 특집 기사가 실렸고, 한글 사용을 둘러싼 각계 의견도 모였다. 특정한 날을 정해 사회적으로 기념하는 건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가혹한 핍박이 이어지던 시기, 국어학자들은 민족정신을 북돋기 위해 세종대왕(재위 1418~1450)이 남긴 '위대한 업적'에 주목했다.

첫 행사가 열린 날은 11월 4일(당시 음력 9월 29일).

조선어연구회는 세종실록 1446년 음력 9월 29일 기록에 남아있는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근거로 이날 훈민정음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알려졌다고 봤다. 당시 기념일의 이름은 '가갸날'이었다. 가갸는 과거 한글을 달리 부르는 말로, 한글을 익힐 때 초성 'ㄱ'부터 각 모음과 합쳐 만든 음절 배열 '가갸갸자...'에서 비롯됐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국어학자 이운재(1888~1943)의 글에 따르면 첫 기념식 자리에서 기념일의 이름을 '가갸날'이라고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글'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면서 각지에서 열리는 기념일 이름도 '가갸날'에서 '한글날'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으나 그 날짜가 확정된 건 한참 뒤다.

초반에는 음력에 맞춰 행사가 열렸지만, 날짜가 매년 바뀌다 보니 불편하다는 의견이 적잖았다. 1930년대에 들어서 양력을 달력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윌리우스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환산해 1931년부터 1933년까지는 10월 29일을 기념했는데, 1934년부터는 그레고리력을 적용해 10월 28일로 하루 앞당겼다.

수년간 이어진 논의를 일단락한 건 오래된 책 한 권이었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정식 명칭은 국보 '훈민정음')에 실린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十一年九月上漸)이 근거가 됐다.

상한은 한 달 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를 가리키는 말로, 조선어학회는 이 기록을 근거로 1446년 음력 9월 10일, 양력으로는 10월 9일을 훈민정음 반포일로 다시 잡았다. 즉, 10월 9일이 우리



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 기획전별전 '일구이록 무한이록'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가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19세기 한글 음절표 [국립한글박물관 제공]
◀'한글' 제2권 제7호, 조선어학회에서 1934년 발행한 잡지
▶1954년 10월 달력. 한국민사원조사령부가 발행한 사진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돼 있던 '가갸날' 행사 모형. 2016년 국립한글박물관 소식지에 실린 사진

1926년 열린 '가갸날' 시작으로 오늘날 5대 국경일로 자리 잡아 음력 날짜 기념하다 양력으로…해례본 발견 뒤 '10월 9일' 확정
북, 훈민정음 창제된 1월 기념…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 의미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박두성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훈민정음 점자표 [국립한글박물관 제공]

말이 세상에 나와 빛을 본 시점이라고 여긴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글날은 10월 9일로 확정됐으며,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1894~1970)는 1954년 한글 창제 및 반포를 기념하는 노래 가사를 쓰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글날이 '빨간 날'이 된 건 언제일까. 박물관에 따르면 1949년 정

부는 한글날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1990년 공휴일이 많아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한글 관련 단체와 시민들이 힘을 모았고 2005년 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후 2012년에는 다시 공휴

일로 지정돼 그 의미를 가리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한글을 쓰는 북한에서는 한글날이 있을까.

국립한글박물관이 운영하는 아카이브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한글을 기념하지만, 훈민정음 반포 일이 아닌 창제 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박물관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1443

년 음력 12월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444년 1월"이라며 "북한은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일'로 기념한다"고 설명했다. 한글 학계에서는 올해가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길 뜻깊은 해로 보고 있다. 한글날 100주년을 맞는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의 대중화와 근대화에 앞장선 학자 주시경(1876~1914) 탄생 150주년이기도 하다.

주시경은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 발행에 참여하고,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말모이 원고를 집필하는 등 민족문화의 열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송암 박두성(1888~1963)이 조선어점자연구회를 결성해 3년간 연구한 끝에 1926년 완성한 한글점자 체계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6개의 점을 이용한 훈맹정음은 시각 장애인에게 '빛이 되어준 문자로 여겨진다. 박두성은 시각장애인이 일어 점자 대신 우리말을 점자로 적을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해 한글 점자를 창안했으며, 1926년 11월 4일 이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날은 한글날(당시 가갸날) 기념식이 처음 거행된 날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하는 행사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한글날 100년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는 특별전 '일구이록 무한이록'을 개최했다.

박물관은 이달 7일부터는 인천 국립세계문화유산박물관에서 '집에서 세상으로: 훈맹정음 100년' 전시를 통해 박두성 관련 유물과 점자 자료 등 65점을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26 한글 주간'에 맞춰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한글을 소재로 한 공연, 전시, 체험 등을 선보인다.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영선
연방세무사

시간들

돔배기에서 부강이까지, 한국의 상어 이야기

대구·경북 내륙에서는 상어고기를 '돔배기'라 부른다. 소금에 절여 숙성한 뒤 산적이나 구이로 제사상에 올리는데, 바닷고기를 염장해 내륙에서 즐기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안동의 간고등어와 닮았다. 포항에서 대구로 넘어오는 길목인 영천이 예로부터 돔배기를 사고파는 큰 장터였다. 상어는 해양 먹이사슬 최상위의 포식자여서 다른 어류보다 수는 함량이 많은데,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도 영천 주민의 평균 혈중 수는 농도가 당시 전국 평균의 약 4.4배로 나타난 바 있다.

사료를 보면 경상도 사람들의 상어 사랑은 오래됐다. 삼국시대 유적인 경북 경산의 임당동·조영동 고분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어뼈가 출토됐다. 땅자가 저승에서도 먹도록 무덤에 넣어준 음식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사료에도 상어가 등장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지금의 충남 홍성인 홍주목과 보령 일대의 남포현에서 상어가 잡혔다는 내용이 나온다. 질기고 독특한 무늬를 가진 상어 가죽을 칼집



2일 부산 동구 북항천수공원에서 대형 그물을 활용해 상어(부강이) 2차 구조작업이 실시됐으나 실패했다.

과 함, 장롱 등을 꾸미는 데 썼다는 기록도 있다. 조상들에게 상어는 버릴 게 하나 없는 바다의 귀한 자원이었다.

상어는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1959년 여름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수영하던 대학생이 상어에 물려 숨졌고, 이후 해녀와 어린이 희생된 사례도 있었다. 1975년 개봉해 세계적으로 흥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조스'는 상어에 대한 공포를 더욱 키웠다. 거대한 상어가 사

람을 덮치는 장면이 뇌리에 박히면서, 상어는 지느러미만 드러내도 공포를 자아내는 '식인어류'의 이미지로 굳어졌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부산 북항의 공원 인공수로에 들어온 상어가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부강이'라는 친근한 이름이 붙더니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관람객들은 내심 북항에 오래 머물길 바라며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하듯 애정을 쏟고 있다. 그러나 부강이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종종 보고되는 암컷 흑상어로 확인됐다. 당국이 선박과 물줄기, 대형 그물을 동원해 바다로 돌려보내려는 것도 시민의 안전과 상어 보호를 함께 고려한 조치다.

조상 대대로 먹거리로 삼아온 상어에게 후손들이 이름을 붙이고 먹이를 주고 있다. 살과 가죽을 얻던 상어를 이제는 보호해야 할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정을 붙였다고 곁에 붙잡아둘 수는 없다. 부강이가 원하는 것도 넓은 바다로 돌아가는 길일 것이다.

김재현

이런말저런글

한글날 떠오른
한글 맞춤법의 '타협'

밥(여기선 밥) 머글래, 그리로 갈께, 먹찌 마라, 조타, 다 그러치, 갈꺀, 사네 드레 꼬치 피네.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우리말이 이렇다. 표기 규범에 어긋났다. 소리를 살피되 어법에 맞추어 써서 뜻을 더 잘 보여야겠다. 밥 먹을래, 그리로 갈께, 먹지 마라, 좋다, 다 그렇지, 갈꺀, 산에 들에 꽃이 피네. 한글 맞춤법에 따라 다시 썼다. 비로소 뜻이 돋보인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승만 대통령 재임 때다. 당대 한글 표기 방식이 영 내키지 않았던 모양이다. 끝내 1954년 3월 '한글 간소화' 정책 마련을 지시한다. 1933년 제정되어 그때도 적용된 맞춤법 통일안의 표음주의·형태주의 병용이 번잡스럽다고 봐서다. 이 대통령은 1955년 9월 안을 거둬들이기에 이른다. 이른바 한글 간소화과동이다.

세월이 흘러 1987년 민주화가 되었다. 새 시대에 걸맞게 맞춤법 통일안을 손보자는 의견이 잇따랐다. 개정 여론은 1988년 결실을 보아 오늘날 바로 그 맞춤법으로 이어진다. 55년이 지난어도 개정 맞춤법과 옛 맞춤법 통일안의 표음주의·형태주의 타협은 보전되었다. 모순된 두 가치는 지금껏 서로를 보완하며 맞춤법의 안정을 다지고 있다.

개정 당시 이른 둘의 타협은 각론에서도 두드러진 것이 있다. 한 어미 표기에 관해서다. '로 시작하는 어미는 된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 내 가 할꺀, 내가 할꺀, 내가 할수록, 내가 할지 말지, 내가 할지언정, 내가 할진대 같은 예다. 다만 '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할 께? 할꺀쇼? 할꺀? 할꺀냐? 할꺀냐?가 보기도. 이 타협이 탐탁지 않다. "내가 할꺀"를 거부하고 "내가 할꺀"를 고수하는 이들의 정서다. 예전엔 다 된소리로 적었다. 어쩐가. 그러니까 '다시 된소리로 통일'이라고 외쳐야 하나. 세상에 좋기만 한 타협이 있을까. 한글날, 타협을 다시 생각한다.

고형규

영화에세이

‘피해자다움’이라는 교리(敎理)

윤가는 감독의 '세계의 주인'(여기서 주인은 주인공인 여고생의 이름이다)에서 사건은 폭력이 아니라 문장에서 시작된다. 전교생이 돌려 서명하는 종이 위에 성폭행 범죄가 피해자의 삶과 영혼을 파괴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고, 열여덟 살 이 주인은 거기 동의할 수 없다며 펜을 내려놓는다. 주목할 것은 이 서명운동의 형식이다. 모두가 같은 문장 아래 이름을 적어 넣는 행위는 일종의 리츨(典禮)이다. 서명은 신경(信經)에 대한 고백이고 서명하지 않는 자는 이단이다.

주인이 거부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서술이다. 자신은 피해자이지만 자신의 삶과 영혼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그녀의 항변이 교실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유는, '영혼의 파괴'라는 어휘가 실은 종교적 유산이기 때문이다. 순결과 오염, 훼손과 회복 불가능성. 이 문법은 피해자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형이상학적 저주다. 또한 한 남자의 폭력이 한 여성의 영혼을 영구히 말소할 수 있다는 신학적 '도그마'다.

폴 버호벤 감독의 '엘르'(2016)의 미셀은 성폭행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고, 깨진 유리를 쓸어 담고, 초밥을 주문하고, 붉게 물든 목욕물 속에 잠긴다. 피해자가 마땅히 밝아야 할 절차 전체에 대한 거부다. 다만 미셀의 거부는 주인의 것처럼 투명하지 않다. 그녀는 수십년 전 수십명을 살해한 죄로 현재 복역중인 자의 딸이고, 사건 당시 열 살의

그녀가 분노한 이웃들에 의해 재를 뒤집어쓴 채 카메라에 포착된 사진 한 장이 평생 그녀를 규정해 왔다. 피해자다움을 얻기하려면 먼저 결백한 존재로 승인받아야 하는데, 미셀에게는 애초에 그 자격이 배정된 적이 없다.

두 영화가 갈라지는 지점은 형식이다. 버호벤은 폭행 장면을 초반에 배치한 뒤 기억으로, 환상으로, 복수의 판본으로 전개한다. 윤가는 영화에서 주인이 겪은 일은 끝내 화면에 오르지 않는다. 친족으로 추정되는 가해자의 존재와 트라우마는 제 3자를 통해 다루어질 뿐이다. 관객 역시 은연 중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달라"는 또 하나의 청원 서명을 들이밀지만 영화는 여전히 침묵한다. 두 작품 모두 피해자를 대신해 유통되는 텍스트를 중심에 놓는다. 미셀을 불박아 둔 것이 소녀 시절의 사진이라면, 주인을 흐드는 것은 익명의 쪽지다. 페미니즘 정치학자인 주디스 버틀러는 '윤리적 폭력 비판'에서,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설명하라는 요구야말로 폭력의 한 형태라고 말한다. 두 여자는 모두 그 요구를 거절한다. 설명 가능해지는 순간 관리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요구가 얼마나 오래 사람을 삼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스�크린 바깥의 사례가 있다. 1945년 해방에서 1991년 8월 김학순의 공개 증언까지,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얼굴을 드러내기까지 46년이 걸렸다. 그 침묵을 만든 것이 가해국 일본

의 부인뿐이었다고 말하면 절반만 맞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 쪽에 있었다. 훼손된 여자는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정절의 문법, 피해를 민족의 수치로 환원해 버린 국가의 서사, 딸의 일을 집안의 불명예로 여긴 가족의 침묵. 그들은 가해자와 자기 공동체 양쪽에서 입을 막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기다린 것은 검증이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가, 왜 진술이 조금씩 다른가, 증거는 어디 있는가. 자기 몸이 증거인 사람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질문들이었다.

기억의 방식에도 같은 요구가 스며 있다. 우리는 그들을 단발머리 소녀의 동상으로 세워 기린다. 그 상은 끌려가던 나이를 되살리는 소중한 기억의 장치이고, 소녀와 노년을 한 몸에 담아 둔 것이다. 다만 우리 기억은 자주 그 앞면만 떼어 간다. 증언대에 오른 이들은 화를 내고 농담을 하고 수요일마다 길바닥에 앉던, 조금도 정형적이지 않은 노인들이었는데도 말이다. 주인이 서명을 거부한 문장은 바로 이 간극 위에 놓여 있다. 피해를 영혼의 파괴로 규정할 때, 우리는 파괴된 채로 남아 있는 사람만을 진짜 피해자로 승인하게 된다.

파괴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일이 아니라, 파괴되지 않았다고 말할 권리를 지켜주는 일. 그것이 연대다. 두 영화는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 피해자에게 무너져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46년 동안 배우지 못한 연대의 첫 문장이다.

김기대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MEDIA CENTRAL NEWS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연합뉴스, 코리아타운 데일리, Washington Post

2026년 신입/경력 사원
공개 채용

미디어중앙에서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편집/광고 디자인 0명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포토샵, 프리미어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메일: kdclass2018@gmail.com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시 설

정청래 미비자 지연, 한미동맹 균열의 방증이다

진 민주당 대표인 더블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 일정이 파행을 빚었다. 정 의원은 결국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소속을 변경해야 했고, 외교 당국은 미측의 심사 비공개 절차를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맹국 국회의원의 공식 국정감사 수행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방치한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대미 외교 무능에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지적했듯, 여당 핵심 인사이자 국회 주요 상임위원인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현 정부 들어 약화된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동맹국 간의 긴밀한 외교적 소통과 고위급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국정감사라는 정당한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차질을 빚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외교 당국은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그러나 동맹의 기본 가치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가 정작 중요한 실무 외교 채널과 대미 협상력에서는 어떠한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했음이 이번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 측에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라는 국가적 중요성을 설득하거나 신속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현 정부 대미 외교력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정청래 의원 비자 지연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나 개별 사안으로 치부하며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동맹국과의 신뢰 구축에 실패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마저 파행으로 몰아넣은 대미 외교 난맥상을 겹쳐히 인정해야 한다. 겉으로만 동맹 강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한미 간 신뢰 체계를 재건하고 실질적인 외교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인 37%에 머물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한 정부 들어 가장 낮은 35%로 추락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하며, 현 국정 기조와 외교·안보 및 민생 정책 전반에 대한 집권 세력의 안이한 인식에 일침을 가하는 중대한 신호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민심 상실의 주요 원인이다. 부정 평가의 상위권에는 부동산 정책의 실정뿐만 아니라 DMZ 지뢰 폭발 사건 등 안보 불안을 불러온 대북·안보 정책의 파탄, 그리고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검찰 개혁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 7개 분야 정책 평가 중 복지와 외교를 제외한 경제, 노동, 대북, 인사, 부동산 등 절대다수 분야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의 삶과 국가적 안전망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는 민심의 엄중한 평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핵심 의원의 미 비자 발급 지연 사태와 같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보여주는 국정 난맥상마저 중첩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외교·안보 현안과 민생 정책 전반에서 누적된 피로감과 불신이 지지층의 이탈을 부르고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 기초의 전면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대북·외교 편향, 민생과 거리가 먼 불필요한 이념·제도적 갈등 유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심을 외면한 국정 운영은 결국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민생 회복과 안보 신뢰 재건을 위한 전면적 인적·정책적 쇄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주요포토

가을,忆새밭으로

1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억새밭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미디어 중앙 이론

‘진실’을 정의하려는 권력,
벼랑 끝에 선 표현의 자유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놓은 이 정교한 논리는 언론과 시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미국식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디딤돌이 아닌 공론장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소로 규정한 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통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권력의 오랜 습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789년 인권선언을 통해 '자유(Liberté)'의 가치를 전 세계에 웅변했던 프랑스가, 오늘날 국가가 허용하는 언어만을 승인하는 법적·제도적 검열 국가로 변모해가는 모습은 씁쓸한 아이러니다.

프랑스에서 펼쳐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더 이상 일탈적 사건이 아닌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선동', '모욕', '공공질서 침해'라는 지극히 모호한 법적 기준은 권력자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사법적으로 압박하는 능능한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사적인 언사부터 미성년자의 종교 비판,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찌르는 코미디언과 풍자 잡지의 해학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발언이 법정의 심판대에 오르 고 있다. 국가가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가'를 직접 판정하기 시작할 때 시민의 표현욕구는 위축되고 공론장은 급격히 사마화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러한 검열의 기초가 단일 국가의 국경을 넘어 글로벌 규범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해 온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가짜 뉴스' 단속이라는 명분 뒤에는, 정부가 공론장의 '최종 사실 판정관'으로 나서려는 권력의 욕망이 깔려 있다. 하위 정보와 혐오 표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솔깃하게 들리지만, 권력이 '진실'과 '거짓', '건전함'과 '부식'의 경계를 스스로 정의하기 시

작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내부로부터 부식되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사상을 억압하고 언론의 입을 막음으로써 사회적 오류를 바로잡거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룬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사상은 공론장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로 숨어들어 더 왜곡되고 폭력적인 극단주의 형태로 분출될 뿐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강변한 '공동체 존중을 위한 한계'가 타인에 대한 인격적 폭력을 막기 위한 최선의 안전장치처럼 보일지라도, 그 한계를 긋는 주체가 국가 권력이 되는 순간 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통제의 칼날로 전락한다.

'나쁜 말'이나 '편향된 언어'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치료제는 정부의 사법적 억압이 아니라, 더 많은 '좋은 말'과 제한 없는 '열린 토론'이다. 혐오와 편견이라는 비합리적이기는 은밀한 검열 속에서 괴물이 되지만, 햇빛이 비치는 공론장에서 다각도로 검증받을 때 비로소 그 허구성이 드러나 스스로 무너진다. 시민사회의 자정 작용과 집단지성을 믿지 못하고 국가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통제하려 드는 순간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너져 내린다.

오늘날 프랑스를 지탱해 온 핵심 가치인 '자유'가 '질서'와 '관계 평화'라는 명분 아래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정치권력이 스스로 '진실'의 독점자를 자처하며 공론장을 통제하려 들 때 일어나는 자유의 퇴행은 비단 프랑스나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혁기 속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 역시 세련된 행정적 언어와 공익의 명분 속에 숨겨진 권력의 검열 그림자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미디어 중앙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Toda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법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법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법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고법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변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안,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트
RICHMONT LAW FIRM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당환영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450 (교재비: \$100) 시작이 중요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S U S H I

페어팩스 일식집 \$50만

1년 순수익 \$20만

SBA 융자 가능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370,000 → \$388,000
\$18,000불 더 받고 팔림

버지니아

1



\$1,5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5, 차고 2, 2018년, 로빈슨 HS, 좋은 위치에 전체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2



\$885,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 차고 2, 좋은 가격에 아주 넓은 구조, 새 부엌

3



\$1,3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땅 1 에이커, 페어팩스 병원 근처

4



\$1,4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3+1, 차고 2, 2000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꾸며진 집

5



\$1,5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5, 차고 2, 아주 넓고 고급스러운 집, 챌틀리 HS

6



\$2,100,000
비엔나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차고 2, 새집, 거의 다 지어진 집, 비엔나 한가운데 위치

7



\$1,150,000
비엔나 싱글홈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벽돌로 지어진 고급 집, 잘 수리 된 이쁜 집

8



\$1,100,000
비엔나 싱글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999년 집, 터운하우스 가격으로 싱글하우스 구입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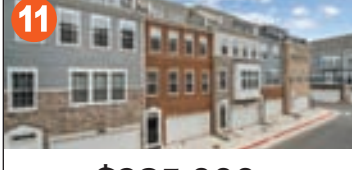
\$1,999,000
비엔나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차고 2, 2016년, 모던하고 고급스럽게 지어진 집

10



\$87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013년, 법원 근처, 아주 넓은 구조, 우드슨 HS

11



\$985,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3+2, 차고 2, 새집, 페어팩스 한가운데 위치, 고급 타운홈

12



\$873,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화장실 3+2, 차고 2, 2022년,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Westfield 고등학교

메릴랜드

1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625,000
Elkridge 타운홈
방 3, 화장실 2+2, 차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바닥, 1층에 안방

3



\$750,000
실버스트링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 홈, 넓고 잘 꾸며짐

4



\$1,27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이쁘고 밝은 고급 집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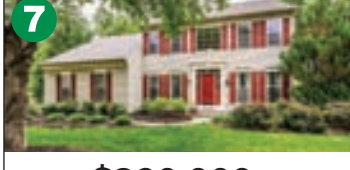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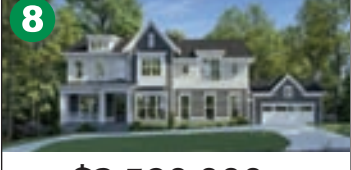
\$1,070,000
N. 포토맥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고급스럽게 잘 꾸민 집, 넓은 뒷뜰, 우튼 고등학교

7



\$820,000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8



\$3,590,000
베데스다 싱글홈
방 6, 화장실 7+1, 차고 2, 새집, 최고급 동네에 아주 넓고 이쁜 새 집

1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2



\$1,425,000
NW 싱글홈
방 3, 화장실 2, 체비체이스와 경제지역, 편리한 교통 고급 동네

3



\$2,500,000
NW 싱글홈
아주 크고 고급스럽게 잘 꾸민 집, 고급 동네

4



\$649,000
SE 타운홈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뉴스타부동산

VA 703-496-4989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롯데타워 우체국 맞은편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컬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감정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

SHK FIRM

ATTORNEYS-AT-LAW

합동 법률 사무소 MD·DC·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와 **풍부한 재판 경험**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MD, DC, V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Baker Botts, LLP
NY, MD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약력

Eccleston & Wolf
MD

SHK FIRM
ATTORNEYS-AT-LAW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에촌 앞 빌딩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금증**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경험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전쟁에 치솟는 곡물가, 식량위기 우려 고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곡물가가 들쭉이는 가운데 내년부터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9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136.0으로 전월(134.0) 대비1.5% 상승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5.8%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3월(160.2)보다는 낮지만 2022년11월(136.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11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7일 증가 기준으로 부셸(약28.123kg)당1,297.50센트로 장을 마감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1,000센트대 초반에서 거래되던 대두 선물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2월 말부터 급격히 오름폭을 확대해 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하면서6월 들어서는1,100센트대 초반까지 내리며 안정되는 듯했으나, 성과 없이 MOU가 만료되고 무력충돌이 재개되자 수직상승을 재개해 지난달 중순에는 한때1,300센트 선을 넘어섰다.

소맥과 옥수수 등 여타 주요 곡물 선물 가격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들어 35.06%와13.91%씩 오른 가격에 거래 중이다.

주된 원인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핵심 비료 원료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이 꼽힌다.

중동은 질소와 요소 등 핵심 비료 원료의 주 생산지다. 이번 전쟁 전까지 전 세계에서 해상으로 운송되는 비료 원료



에멘의 시장에서 상인이 낱알을 들어 보이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엘니뇨 끝나고 천연가스·비료값 오르며 본격 상승 가능성”
‘애그플레이션’ 현실화시 저소득 국가 식량안보 위기 처할 듯**

의 약3분의1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던 까닭에 원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격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수출항과 흑해를 지나는 곡물 운반선을 공격하면서 국제유가와 곡물가를 밀어올린 것도 배경이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문제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의 경우 동태평양 적도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1.5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로 곡물 가격 상단이 제한될 전망이다. 내년은 반대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 이상고온과 홍수, 병충해 등을 초래하지만 미국 중부, 브라질 서남부, 아르헨티나 등 주변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강수량과 수확량을 늘

리는 효과가 있다.

실제 2023년5월에서 2024년4월, 2014년11월에서 2016년4월 등 슈퍼 엘니뇨가 출현했던 때 곡물 가격은 어김없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슈퍼 엘니뇨 이후에는 정반대 현상인 ‘라냐냐’(동태평양 적도 해수온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 이상저온과 흉작이 나타난다.

컬럼비아대 국제기후사회연구소(CCSR/IRI)는 동태평양 적도 해수면 온도가 올해 10월에서 내년1월 정점에 이른 뒤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곡물 가격 상승의 걸림돌이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료는 내년 애그플레이션을 만들 원흉”이라면서 “내년 동태평양 연

안 해수면 온도가 하락 방향이라면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 방향이고 비료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곡물 또한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에너지 가격이 이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내년 상반기 파종 시즌 비료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이란을 제외한 중동 지역9월 원유수출량은 일평균1천650만 배럴로 전쟁 발발 전의 87%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으로 정제설비가 다수 피해를 봤고 보험료 인상 등 제반 비용도 상당해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5일 영국에서 열린 에너지정보포럼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되더라도 “수요를 맞추면서 재고를 보충하는 데는 길게는2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HANS TRAVEL
문의전화 703-658-1717
hanstravelusa@gmai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펌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INSTEIN & SOHN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후 가해자가 불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경찰이 사고내 후 피해자에게 물어 써온 것을
노송을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한다.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보상금을 받지 못할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VA 703.887.1037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888.340.758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wepllc.com
FAX 301-770-4711

해커도 AI에 묻는다…해킹의 문턱이 무너졌다

최근 국내 금융권을 노린 사이버 공격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침투 도구가 포착되면서 해킹 위협의 양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AI에 악성코드를 짜 달라고 묻던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AI가 표적의 허점을 직접 찾아내고 여러 공격 단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했던 작업을 AI가 떠맡으면서 공격에 드는 시간과 인력도 크게 줄었다.

한국 금융권에도 등장한 AI 해킹…순식간에 인증 정보 탈취

글로벌 보안업체 클라우드스트라이크와 구글, 엔트로픽의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면 표적 탐색과 취약점 분석, 악성코드 제작, 인증정보 탈취 등 사이버 공격의 모든 과정에 AI가 깊숙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AI 에이전트를 동원해6시간도 안 돼 대규모 인증정보 탈취 작전을 짜고 실행한 사례까지 보고됐다. 공격자 한 명이 수십 곳의 피해 기관을 동시에 상대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AI가 만능 해결사가 된 것은 아니다. 어떤 표적을 공격할지, 빼낸 정보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지 같은 핵심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내리기 때문이다.

엔트로픽도 “자율성과 피해 규모는 별개”라며 가장 심각했던 침해 가운데 여러 건이 사람이 단계마다 지시한 작전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권도 이미 AI 공격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클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지난9월 말부터 이달 초 사이에 국내 금융기관을 겨냥한 공격에 중국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와 거대언어모델(LLM)이 함께 쓰인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시스템에는 금융 중개인이 이용하는 한 은행의 대출 조회 서비스와 다른 은행의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이 포함됐다.

아르텍스는 표적 정보 수집부터 취약점 탐색,



한 명의 공격자가 AI 에이전트로 여러 기관을 동시에 공격하는 장면

[연합 AI 플랫폼 생성 이미지]

금융권 공격에 AI 침투도구 등장…표적 탐색부터 취약점 분석까지 해외선 몇 시간 만에 인증정보 수천건 탈취…한명이 수십곳 공격

공격 경로 설계, 검증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보안 점검용 도구로 깃허브에 공개돼 있다. 허가받은 점점에 쓰라고 만든 도구가 공격자 손에 들어가 무기로 바뀐 것이다.

해외에서는 AI로 공격 속도와 규모를 끌어올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구글 위협인텔리전스그룹(GTIG)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금전을 노린 한 공격자는 침해한 기업의 클라우드에 다중 AI 에이전트 체계를 깔고6시간도 안 돼 대규모 인증정보 수집 작전을 계획부터 실행까지 마쳤다. 동원된 것은 AI 코딩 챗봇과 프롬프트, 미리 짜 둔 에이전트 지시서 정도였다.

AI 에이전트들은 취약점 스캔을 스스로 관리

했고 오류가 나면 실시간으로 고쳐 가며 작업을 이어갔다. 이렇게 툴된 제3자 인증정보가 수천 건에 달했다.

한 명이 수십곳 공격…AI가 흔드는 ‘해킹의 경계’

AI의 발전이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는 공격의 경제성에 있다. 소수의 인원으로도 공격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게 됐다.

엔트로픽이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8월까지 자사 모델이 악용된 주요 사례가 담겼다.

중국 후난성 창사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어 사용 운영자들의 첩보 작전 ‘GTG-10007’이 대표적으로 운영자 가운데2명은 현지 대학생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상위 에이전트가 정찰과 침투 이후 작업을 나눠서 여러 하위 에이전트에 동시에 맡기는 ‘에이전트 스왑’ 방식을 썼으며, 표적은 교육, 금융, 제조 기업과 각국 정부기관 등50여곳에 달했다.

엔트로픽은 불과1년 전만 해도 숙련된 전문가가 다수 필요했던 다중 표적 공격을 이제는 혼자서도 끌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찰과 스크립트 실행처럼 사람이 매달려야 했던 일을 AI가 넘겨받으면서 공격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AI 발달로 해킹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공격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엔트로픽은 AI 자율화로 공격 한 건에 필요한 기술 수준과 노동력이 줄면서 예전에는 돈이 되지 않았던 표적까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이 허술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서비스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AI를 동원한 해킹 공격에서 지켜야 할 곳은 전방위로 늘고 있다.

서버와 네트워크만 막아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글이 확인한 한 공격 대시보드에는 클라우드·AI 서비스 인증정보를 포함해2만3천800건이 넘는 비밀정보가 정리돼 있었다.

그렇다고 기본 수칙이 아주 쓸모없어진 것은 아니다.

엔트로픽은 보고서에 실린 공격 대부분이 탈취한 인증정보, 외부에 노출된 서비스, 피싱처럼 이미 알려진 수법이었고 완전히 새로운 기법에 기반한 작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클라우드 인증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노출된 비밀키는 곧바로 교체하라고 권고했다. 평소와 다른 연산, API 사용을 감시하고 AI 에이전트 설정 파일과 개발 자동화 환경도 보안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AI가 노린 해커의 판단까지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I를 가진 공격자 한 사람의 화력과 속도는 예전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공격의 문턱이 낮아지는 사이에 방어자에게 남은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7일 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ATM)가 설치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사업체 & 상가 매물 안내 메릴랜드 리커 4백만불 건물 포함 매출연 2백2십만불, 인벤토리 40만불 발티모아 뷰티서플라이 10만불, 인벤토리 20만불 발티모어 뷰티 서플라이 5000 SF, 가격15만불, 고정수입 디씨 고급 사무실 임대 찾아드립니다 단독건물에서 커피샵/디저트 사업 시작하실분 / 건물구입 1백8십만불 세차장 하실분 5백5만불/ 2백만/ 8백9십만 사무실/병원/창고/공장/랜드/구입 찾아드리고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서류 검토와 유리한 협상 전문 수입 꾸준한 사업체 매물 있습니다 메니지먼트만하면서 수입좋은 매물 있습니다 50만불에서 3백만불	VA 메트로 주변과 학군좋은 투자성 매물 추천해드립니다 좋은 임대 매물 집 인스펙터처럼 잘 봐드립니다 한국 기업 미국 진출 맞춤 솔루션 성공적인 초기 정착 가이드 ·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법인 (Inc./LLC) 설립 및 정착 · 현지 최적화된 사업 인프라 구축 자문 사업 및 법적 리스크 최소화 · 다수의 대중소기업 다수 협상 경험 및 노하우 · 현지 인프라 네트워크 (EPC) 원스톱 연결 · 맞춤형 인허가 및 계약 조건 협상 지원 바이오/생명공학 기업 CGMP 시설 및 LAB 협상/구입 내집장만 1년 무료구독 신청서 이름 : _____ 주소 : _____ E-mail : _____ 전화번호 : _____	MD 몽고메리 카운티 / 하워드카운티 새집과 오래된집 인스펙터처럼 집 봐드립니다 전문가 Q&A (기업 투자 FAQ) Q1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시 초기 정착 전략은? 현지 법인 설립 초기 단계부터 공간 제안, 계약 협상, 시공 및 인프라 네트워크 (EPC)를 원스톱으로 연결합니다. Q2 Cap Rate 최적화 및 1031 Exchange 활용방안? 현금 흐름 분석(Cap Rate) 및 세금 이월 투자 전략(1031)을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주재원 · 공장 · 창고 · 오피스 기업 맞춤 공간 제안 & 전문 협상 대·중·중소·공기업 다수 경험 열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703-928-5990로 Text 또는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로 메일해주세요. “내집장만” 과 “내집관리”를 1년동안 무료로 집에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리스팅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새집 구입시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밀하게 봐드립니다. 구입전 꼭 조언을 얻으셔야 합니다. 새로 집 지으실 분, 건축업체 및 시공업체 소개해드립니다. 703.928.5990 k@dwelldwashington.com 승경호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	---	---	--

매킨 맥 상원의원 “한국 대미 투자, 일본보다 뒤쳐졌다”

“韓인사들에 직접 지적”...쿠팡 등 美기업 공정대우 강조

데이브 매킨 미국 연방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8일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일본보다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매킨 의원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국 측 인사들에게 일본이 일부 투자에서 한국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을 짚었다”며 “(투자 이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조선업에1천500억달러, 다른 인프라에2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투자를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투자가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 “매우 복잡한 문제로, (한미) 양측 모두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투자 자금이 늦기보다는 이른 시일 내에 실제로 투입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미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는 말에 “제가 한국에 온 이유 중 하나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양국 사이에 때때로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한국 측과 면담에서 쿠팡 문제도 일부 논의했다며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는 맥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기를 원한다”며 “여기에는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매킨 의원은 “한미관계는 미국이 맺고 있는 가장 훌륭한 관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아시아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매우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국 국방예산 증액, 해군 전력 확충 등이 중요하다면서도 “핵연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살펴볼지 못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 군함 10척 건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선박을



데이브 매킨 미국 상원의원이8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급하는 것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조선업 역량 일부를 직접 확인했다”며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의 조선 역량 확충도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으면서

도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와도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저 역시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보면 북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야 한다”며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킨 의원은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으며, 전남 비무장지대(DMZ)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았다. 이날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났으며 방산·조선업계 기업인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러트닉, 김정관에 국정원 불신 전달’ 보도에 “사실 아냐”



김정관(왼쪽부터) 산업통상부 장관·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산업부·국정원 일제히 부인...’ 이종석-조현, NSC 논쟁’ 보도도 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를 일제히 부인했다.

산업부는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국내 한 언론은 이날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2천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

닉 장관이 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도 이날 언론에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재 한미 간 정보협력은 북한·사이버·기술 유출·조국가 범죄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지난8월 국가안전보장

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종석 국정원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간 논쟁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확인해드린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미국의 요구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미 간 정보 분야 갈등이 다시금 부각되는 모양새다.

올해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은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미디어 중앙 기사 관련 : 703-281-9661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703.486.6082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3,000 렌트

3bd, 2.5bt, 1704 sqft, 파인크레스트 단지내, 편리한 교통

폴스터치 싱글홈

\$1,710,000

5bd, 4.5bt, 3902 sqft, 2011년 레노베이션, 맥클린 하이 학교

알링턴 싱글홈

\$1,999,000

5bd, 6bt, 4275sf, 2026년 신축건물, RT-50 가까운 지역

비엔나 타운홈

\$736,600

Closed

3bd, 3.5bt, 2000sqft, 비엔나 메트로역 도보거리, 육탄 하이 학교

페어팩스 싱글홈

\$955,500

Closed

4bd, 3bt, 3038sf, 우순하이 도보거리 \$25,500+판매

웨스트 스프링필드 타운홈

\$656,000

Closed

4bd, 4bt, 하이스쿨 주변, \$26,000+판매

장미원

Associate Broker

Licensed VA/DC/MD

VA/DC Office (Vienna Tysons)

438 Maple Ave. E, Vienna, VA 22018

MD Office (One Bethesda)

7373 Wisconsin Ave. #1700, Bethesda, MD 20814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이도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워튼 센터(H+M)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과 첼들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주먹 날리는 현실판 ‘터미네이터’ …미국서 인간과 로봇 격투대결

183m거구에 강철로 만든 팔, 해골 모양의 얼굴까지.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 속 기계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을 향해 주먹을 날린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18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 대 로봇’ 격투 경기가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트업 REK(Robot Entertainment Kombat)가 진행한 이 이벤트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형 로봇이 등장했고, 키167cm의 유명 유튜버 프랭키 라페나가 상대로 나섰다.

이 가운데 한 로봇은 영화 ‘터미네이터’ 속 인간을 해치려는 로봇 ‘T800’의 이름을 그대로 땀다.

영상을 보면 당시 경기에서 라페나는 몇 번 팔을 휘둘러 로봇을 넘어뜨렸지만, 로봇은 끄떡없다는 듯 일어났으며 발로 라페나를 세차게 걷어차며 반격했다.

라페나가 첫 번째 로봇을 때려눕힌 뒤, 로봇이 실려 나가자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로봇이 경기장 벽면까지 라페나를 밀어붙이



인간과 대결하는 로봇

[REK 유튜브 갈무리]

167cm 남성, 경기 도중 부상…캘리포니아 당국 “즉각 중단” 명령

며 공격을 이어갔고, 라페나는 로봇을 때리다가 손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로봇은 인간 플레이어가 가상 현실(VR) 장비를 장착하고 조종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마치 ‘터미네이터’를 연상케 하는 로봇이 인간을 직접 공격하는 모습은 우려를 샀다.

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는 REK

측이 승인 없이 인간이 포함된 격투기 경기를 한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며 즉각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 위원회는 아마추어·프로 복싱과 킥복싱, 이종 격투기 등을 규제하는 곳이다.

반면 REK 측은 범망의 허점을 지적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식스 리브 REK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란 사람 간의 대결이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대결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인간과 로봇의 대결을 담은 경기 영상은 유튜브에서 누적 조회 수59만 회를 기록했다.

켄 골드버그 UC버클리 교수는 사람들이 로봇에 두려움과 좌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경기 영상에 오히려 열광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람들은 인간이 로봇의 기어 박스를 걷어차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도 동시에 “실상 로봇이 주먹을 날리도록 프로그램되면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관세, 美소비재 물가2.9%p올려…뉴욕연은 보고서

소비재 67개 품목 분석…“관세 없었으면 美 물가 하락”
“관세, 직접 효과만으로 가격에 더 크고 장기적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난해와 올해 초 미국의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가 없었다면 이들 소비재 가격은 같은 기간 오히려 약1% 하락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지난6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뉴욕 연은은 67개 소비재 품목을 분석한 결과, 올해2월 기준 이들 품목의 가격 수준이 관세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2.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부과된 관

세가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에 반영됐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평균 관세율이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재 가격은 약1년 뒤 0.2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 인상 영향이 즉시 가격에 모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뜻이다.

지난해 인상된 관세 가운데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 비율은 약 26%로 추산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늘어난 비용은 기업들이 흡수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관세의 영향은 수입품 가격의 직접

적인 상승에만 그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전체 관세 관련 가격 상승효과 가운데 약3분의2가 관세 자체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였고, 나머지는 미국 기업들이 수입 부품과 원자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간접적인 효과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관세는 직접적인 효과만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소비자 가격에 더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연구진이 분석한 소비재의 연간 가격 상승률은 2026년 초 정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세로 인해 높아진 가격 수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구진은 관세 정책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높은 가격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4월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표를 들고 상호관세에 관해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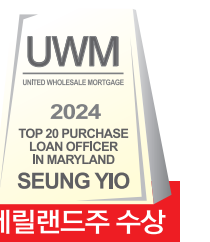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버지니아주 수상



메릴랜드주 수상



조지아주 수상



National Top 1%
2018년~2024년까지 7년 연속 수상



Top 50 Mortgage Company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nmlsconsumeraccess.org



CEO **손여** Seung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세계 보건 사령탑’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

말라리아 연구자에서 코로나19 방역 지휘자로…WHO 첫 아프리카 출신 수장
중국 편향 시비·티그라이 내전 논란 속 두 번째 임기…재정위기 돌파 시험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61)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제기구 수장 가운데 한 명이 됐다.

그는 2020년 3월 11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을 ‘팬데믹’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3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응의 전면에 서서 국가 간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그의 모습은 팬데믹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그러나 세계 방역을 지휘한 그에게 찬사만 쏟아진 것은 아니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지나치게 우호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WHO의 능력 대응론이 불거질 때마다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테워드로스는 1965년 당시 에티오피아 영토였던 아스마라에서 태어났다. 아스마라는 1993년 독립한 에리트레아의 수도가 됐다.

그의 집안은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 뿌리를 둔 티그라이계다.

티그라이인은 에티오피아 인구의 약 6%에 불과하지만,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이 1991년 군사정권 붕괴 이후 집권연합의 핵심 세력으로 2018년까지 중앙정치를 주도했다.

테워드로스는 훗날 TPLF가 주도한 집권연합 정부에서 보건장관과 외교장관을 지냈다. 이런 정치적 배경은 그의 성장 기반이 됐지만, 내전이 벌어진 뒤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불씨가 됐다.

그가 보건 전문가의 길을 택한 데는 어린 시절 서너 살이던 남동생을 잃은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동생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흉역 같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었을 것이라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회고했다.

그는 이 경험을 누구나 형편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WHO 사무총장에 오른 뒤 ‘보편적 건강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아스마라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테워드로스는 1986년 에티오피아 보건부에 들어가 공중보건 전문가로 일했다. 이후 영국 런던대에서 감염병 면역학 석사학위를, 노팅엄대에서 지역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과정에서는 티그라이 지역의 댐 건설이 말라리아 전파에 미치는 영향과 방제 방안을 연구했다. 질병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환경과 생활 여건, 보건행정이 맞물린 공중보건 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그는 티그라이주 보건국장을 거쳐 2005년 TPLF가 주도한 에티오피아 집권연합 정부의 보건장관에 오르며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했다.

보건장관으로 재직할 7년 동안 농촌과 빈곤층을 위한 기초 보건체계 확충에 힘썼다. 전국에 수만 명의 보건지도원을 배치하고 보건소를 늘려 예방접종과 모자보건, 말라리아·결핵 치료 서비스를 일선 마을로 확대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의 말라리아·에이즈 및 모자보건 분야 주요 지표가 개선됐고, 테워드로스는 국제 보건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2년 외교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테워드로스는 국제무대에서 에티오피아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2017년 5월 WHO 사무총장에 선출돼 그해 7월 취임하면서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처음 WHO 수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는 무장세력의 공격이 이어지는 분쟁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을 결정적으로 시험한 것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였다.

WHO는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테워드로스는 각국에 “검사하고, 검사하고, 또 검사하라”고 촉구하며 방역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켜서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포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신이 개발된 뒤에는 저소득 국가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구매 체계인 코백스를 통한 공평한 배분을 추진했다. 백신을 선점한 부유한 국가들을 향해서는 ‘백신 민족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팬데믹 초기에 중국의 방역 대응과 정보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은 중국 편향 논란을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WHO가 중국 중심적으로 움직인다고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탈퇴를 통보했다.

테워드로스는 WHO가 중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코로나19를 정치화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맞섰다.

이 논란은 회원국에 자료 공개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는 WHO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냈다.

테워드로스가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동안 에티오피아에서는 내전이 벌어졌다.

2020년 11월 아비 아머드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와 TPLF 사이에 시작된 전쟁은 2022년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이어졌다. 테워드로스도 티그라이계인 데다 TPLF 주도의 집권연합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력으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렸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그가 WHO 수장의 지위를 이용해 TPLF를 지원한다고 주장했고, 테워드로스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았으며 오직 평화를 원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봉쇄된 티그라이 주민들의 의약품과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거듭 비판했다.

국제사회가 티그라이의 참상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배경에 인종적 편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런 발언은 인도주의적 호소라는 평가와 국제기구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비판을 동시에 불렀다.

테워드로스는 2022년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했다.

WHO는 이듬해 5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미래의 팬데믹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마련에 나섰다.

WHO 회원국들은 3년여의 협상 끝에 2025년 5월 의료 물자와 백신의 공평한 공급,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팬데믹 협정을 채택했다. 그러나 병원체 공유와 그에 따른 이익 배분을 규정하는 핵심 부속서 협상이 끝나지 않아 서명과 비준 절차는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WHO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도 험난해졌다.

최대 공여국이던 미국이 2026년 1월 공식 탈퇴하면서 WHO는 예산과 사업을 축소하고 전체 인력의 약 4분의 1을 줄여야 하는 재정 위기를 맞았다.

전쟁으로 의료진과 병원이 공격받고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WHO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테워드로스는 2027년 마지막 임기를 마친다.

그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대응의 공과뿐만 아니라 팬데믹의 교훈을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체제로 정착시키고, 분열된 세계에서 WHO의 신뢰와 역량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WHO 자금 지원 중단 결정을 표현한 PG

[연합뉴스 자료 일러스트]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애난데일 싱글홈	옥튼 콘도	웃브리지 타운홈	센터빌 싱글홈	클립턴 싱글홈
\$6,000	\$2,450	\$469,000	\$999,000	\$950,000
주재임 대 환영 모든 가구 + TV 포함 방5/화4.5, 4800 sq. 피트 근처	방2/화2 비엔나역 근처 거리지 파킹. 업그레이드가 많음	방3, 화22 업그레이드가 많이 한 집	방6, 화35	방4, 화4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골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571.999.2755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 ‘워터프론트’ 에바 마리 세인트 별세

영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1959)에서 미스터리한 금발 스파이 역을 맡는 등TV와 연극 무대, 영화를 오가며 활동한 할리우드 유명 배우 에바 마리 세인트가6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102세.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이날 세인트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서 가족들 곁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세인트는 1924년 뉴저지주(州)에서 태어나, 타이어 제조업체 임원인 아버지와 교사였던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오하이오 볼링그린 주립대에 진학했다가 대학 연극을 통해 연기를 접했고, 라디오 연속극을 시작으로 TV에도 진출했다. 1946년 게임쇼 ‘캠퍼스 후프라’에서 얼굴을 알렸다.

1953년TV 드라마 ‘바운티폴 가는 길’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고, 같은 작품이 무대로 옮겨가면서 브로드웨이에도 진출했다.

브라운관을 넘어 스크린으로도 영역을 넓혔다.

첫 영화인 ‘워터프론트’(1954·On the



배우 에바 마리 세인트

[AFP=연합뉴스]

Waterfront)에서 인기 배우 말런 브랜도와 호흡을 맞추며 열정에 들뜬 여성 이디 도일 역을 맡아 오스카(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또 다른 대표작으로는 영화 ‘북북서

로 진로를 돌려라’가 꼽힌다.

세인트는 앨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에서 수수께끼의 스파이 이브 역할을 연기했다.

이외에도 ‘36시간’, ‘스토킹 문’, ‘댓서

튼 필링’, ‘올 폴 다운’, ‘러빙’ 등에 출연했다.

1970년대부터는 다시 TV와 연극무대로 자리를 옮겼다.

브로드웨이에서 ‘더 링컨 마스

크’(1972), ‘10월 첫 월요일’(1979)에 출연했고, TV에서는 ‘택시!!’, ‘하우더웨스트 윈’ 등을 통해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다.

1990년에는 ‘피플 라이크 어스’를 통해 처음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어서도 연기 활동을 멈추지 않고, 2006년 ‘슈퍼맨 리턴즈’와2014년 영화 ‘윈터스 테일’에 출연했다.

1951년 당시 감독 지망생이었던 제프리 헤이든과 결혼한 세인트는 연기자로서의 경력과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을 병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오스카상을 받고 이틀 뒤 첫아들을 낳았으며, 이후 수많은 출연 제의가 왔지만1년에 영화 한 편씩만 찍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에이전시에서 슈퍼스타로 만들어주겠다며3편의 영화 계약을 제안했지만,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현역 여배우이면서 가정을 영위하는 인물이 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남편 헤이든이 201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로했으며, 유족으로는 두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있다.

BTS·블랙핑크 등 美 ‘2026 키즈 초이스 어워즈’ 후보

제니·로제·캣츠아이드 노미네이트...’ 케데한’ 안효섭 · 아덴 조도 올라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걸그룹 블랙핑크 등이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 ‘2026 키즈 초이스 어워즈’(Kids’ Choice Awards 2026) 후보로 지명됐다.

8일(현지시간) 공개된 후보 명단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페이보릿 뮤직 그룹/듀오’, ‘페이보릿 앨범’, 페이보릿 송’ 3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됐다.

‘키즈 초이스 어워즈’는 미국 어린이 엔터테인먼트 채널 니켈로디언이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음악·방송·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랑받은 스타와 작품을 선정한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4년 연속 ‘페이보릿 뮤직 그룹’에 선정돼 해당 부문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도 같은 부문 후보에 올라 통산 다섯 번째 트로피를 노린다.

블랙핑크는 ‘페이보릿 뮤직 그룹/듀

오’ 부문에서 방탄소년단과 함께 후보로 선정됐다.

또한 멤버 로제는 ‘페이보릿 여성 아티스트’, 제니는 호주 가수 테임 임팔라와 발표한 ‘드라큘라’(Dracula)로 ‘페이보릿 뮤직 컬래버레이션’에 각각 노미네이트됐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는 ‘페이보릿 여성 브레이크아웃 아티스트/그룹’ 후보로 발표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다수 부문에 후보로 지명돼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 진우·루미의 목소리를 연기한 안효섭과 아덴 조는 ‘페이보릿 남성 애니메이션티드 보이스 프롬 어 무비’와 ‘페이보릿 여성 애니메이션티드 보이스 프롬 어 무비’ 후보 명단에 각각 포함



그룹 방탄소년단(좌)과 걸그룹 블랙핑크(우)

[빅히트뮤직·YG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DB 금지]

됐다.

또한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의 루미·조이·미라는 ‘페이보릿 온-스크린 듀오/트리오’, 오리지

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은 ‘페이보릿 송 프롬 어 무비’에 각각 도전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 밖에 ‘페

이보릿 애니메이션티드 무비’ 부문 후보에도 올랐다.

시상식은 다음 달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RE/ALTY

갤럭시부동산

주소

금액

설명

5244 Stoney Branch Ct, Centreville, VA

UNDER CONTRACT

\$595K

손님이 원하는 동네에 집 나오자마자 좋은 조건으로 득템, 로리는 항상 오피는 이집, 9/11 세블먼트 예정

2715 Pembly Dr, Vienna, VA

UNDER CONTRACT

\$960K

비엔나 메트로 옆 차고 2 타운홈, AC 2개, Nottaway 공원 옆, 9/9 세블먼트 예정

915 N Patrick St Unit 407, Bristow, VA

SALE

\$425K

Old Town, 아주 좋은 위치, 방 1, 화장 1, 4층 로얄층, 편리한 layout.

11893 Benton Lake Rd, Fairfax, VA

SALE

\$679K

Victory Lakes 단지내에 있는 관리 아주 잘 된 타운하우스, 교통/생활 편리

2905 Bleeker St #4-304, Fairfax, VA

SOLD

\$679K

셀러/비이더 서로 좋은 조건 협의 계약.Everybody Happy, 7/15 세블먼트 완료

7209 Valleycrest Blvd, Annandale

SOLD

애니메이션 좋은 위치에 있는 반듯한 땅의 집, 생활 가능 As-Is Condition 매매

13343 Connor Dr, Centreville, VA

SOLD

Stone Gate at Faircrest 콘도, 방 2, 화장 2, 차고 1, 3층 터운형 콘도, 학군(콜린 파월 초등) 좋고, 교통, 생활 편리 6/30 세블먼트 완료

13511 Lavender Mist Ln, Centreville, VA

SOLD

투자용 집으로 구매, 1031 Exchange Program 으로 갈아탑, 6/30 세블먼트 완료

10003 Donal Ln, Vienna, VA

SOLD

손님이 너무나 원하던 동네, 6개의 경쟁 오피 좋고 \$3K 차이로 득템, Buyer So Happy, 6/24 세블먼트 완료

주소

기간

세입자

올 겨울/내년 봄, 파견 나을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9월 ~ 12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1632 Morrill Ct, McLean, VA 22101

NEW

\$5,500

주재원이 6년 이어서 살았음, 주인이 로리 손님을 받고 싶어서 부특함, 통영로우 중 - 맥클린 고, 9/27 입주가능

1811 Fallbrook Ln, Vienna, VA

NEW

RENT

주재원 3년

1814 Fallbrook Ln, Vienna, VA

NEW

RENT

주재원 1년

7205 Van Ness Ct, McLean, VA

NEW

RENT

크레딧 좋은 세입자 2년

9915 Littleton Dr, Fairfax, VA

NEW

RENT

마켓에 내 놓자마자 1시간안에 렌트 완료, 3년

3134 Delburne Ct, Fairfax, VA

NEW

RENT

주재원 1년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NEW

RENT

사랑하는 교민 1년

1830 Clifdale Ct, Vienna, VA

NEW

RENT

사랑하는 교민 1년, 세 집 짓는 공사중

9340 Sweetbay Magnolia Ct, Fairfax, VA

RENT

사랑하는 교민 2년

2233 N Underwood Dr, Falls Church, VA

RENT

타국 주재원 3년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중

교통사고

목,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어깨, 무릎 통증

직장사고, 운동사고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2027 메디케어 등록안내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6년 10월 15일 ~ 12월 7일

상담 예약

703-973-5900
410-216-1553

무료
상담

애난데일 지점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14631 Route 29, #214,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지점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오 향 제
703-973-5900

2027년도에는 갖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처지(Part C)와
약보험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꼭 비교를 해보세요!



Jenny Oh
703-642-0305

매주 토요일 무료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28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216-1553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10월 가을맞이
Special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인기 아이템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高貴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99.00

종근당 침향환

침향 22% 함유
50개 \$25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위건강엔 매스틱

카무트 브랜드 밀 프리미엄 효소

- ✓ 소화 불량 개선
- ✓ 장 건강 증진
- ✓ 변비 예방
- ✓ 혈당 스파이크 예방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열중클레스트를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더 리포좀 글루타치온
간 해독
콜라겐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
에 최고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가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캐나다산 펌킨 오일
빈노, 다노, 잔노, 야노 & 탈모 Bye~~
전립선/방광 개선
탈모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 작용

프리임 홍삼정 엑기스
내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의 비결!
6년근 국내산 홍삼
100% 농축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항산화 작용

선삼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기력회복 / 면역력암환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순도 100% 천연 항생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10z **\$45**
40z **\$125**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강원도 특산물 솔잎청 오미자청
저온추출 농축한 강원도산 오미자, 솔잎 추출액과 프락토올리고당, 플란타겟치유산균을 사용하여 만든 프리미엄 청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2+1
-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2+1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고 싶으신 분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신 분
목, 허리,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치매예방! 뇌풍격 인기제품 포스파티딜
똑똑한 인지력
똑똑한 기억력

홍화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비에날씬 유산균
60캡슐
✓ 체지방 감소
✓ 장 건강 유산균
✓ 캡슐 사이즈를 줄여 섭취가 편안
✓ 한국인 모유에서 유래한 특허 유산균
\$79.99

관절통증에 좋은 MSM / 보스웰리아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글루타치온 387mg 함량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땃땃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옥마놀한
제도아리 / 재첩엑기스 / L칼슘
노니페실 / 엘라스틴부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샴푸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10월
구
인
광
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미디어 중앙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스파에서
바디 필링하실
여자 직원 구함

유 경험자,
무 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Stafford, VA

(540)368-9699

메디케어(Medicare) 전문가 Paul Kim(수봉)

“복잡한 메디케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65세 (1961년생) 신규 가입부터 플랜 변경까지,
메디케어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나에게 꼭 맞는 파트 C(우대 플랜)와 파트 D(처방약 플랜)는 무엇일까?
●정부 보조 혜택(수수로 면제 등)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수많은 플랜 중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딱 맞춘 최적의 선택을 찾아드립니다.

체크 리스트

1. 올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카드를 처음 받으시는 분
2. 현재 가진 플랜의 치료, 안경, 약 보조 혜택을 더 키우고 싶은 분
3. 다른 주에서 이사 오셨거나 처방약 변경이 필요한 분

“알기 쉬운 메디케어,
무료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 703-223-6961 (편하게 전화 주세요)
*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 정부 보조 프로그램 상담 가능
* 개인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15,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목폴라

반코트

양복

벨트

콤비

와이셔츠

바지

양말

점퍼

남방

티셔츠

넥타이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
넥타이/벨트(가족)/양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플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미디어 중앙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미디어 중앙으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미디어 중앙 생활안내 Classified

미디어 중앙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좌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 / 703-862-5395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이메일: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직원
-운전기사 / 간호사(RN) / 간병인
-건강 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프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기타 구인

엘리콧시티 Cafe June 직원모집
-샌드위치 스태프 2명
-주말 근무 가능자
-경력/초보자 모두 가능
443-386-0515

엘리콧시티 펫 그루밍 센터에서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443-759-9798

볼티모어 쇼핑센터 빨래방에서 식구가 맡아서 운영하실분
213-220-8873

픽업 스토어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빨래 깨끗이 빨아줄 공장을 찾고 있으며, A급 스फट맨 필요하신분 연락 바랍니다.
703-966-9072

싱글/타운/방 렌트

교통 편리한 콜롬비아 지역 타운하우스
큰 방 1, 욕실 1, 방세 놓습니다.
잠만 주무실분 환영 (간단한 조리가능),
유틸리티 별도
410-585-7336 (문자 요망)

저먼타운 싱글홈 위크 아웃 베이스먼트 렌트
방2, 부엌, 응접실, 욕실, 출입문 별도
202-985-9191 (문자나 메세지 요망)

베데스다 반지하 큰방 렌트합니다.
부엌, 화장실, 취사 가능
240-543-1601 (메세지 요망)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곳에 위치한
(495 & 95 만나는 곳)
싱글하우스 방렌트 또는 하숙 가능

301-385-3535

게이더스버그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
베이스먼트 렌트합니다.
434-532-5548 (문자요망)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2층
렌트, 가구 완비, 인터넷, 교통 편리
직장인 구함
443-631-7866

중고 매매 / 기타

05년 오트세이 투어링 매매 \$2,490
한 주인, 뉴 타이어, 상태 매우 양호
703-646-0808 / 919-571-0089

세탁 장비 및 카운터 가구, 창고 대방출
-보일러, 콤팩트샤, 베쿰
-셔츠 프레스, 상코사 더블백
-자켓 프레스, 팬츠 프레스 등등
-카운터 가구, 피팅룸, 실장, 기타 소품
Paul Kim : 301-404-0701

케어 파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10/12 - 10/16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부동산 매매

MD Suitland 같은 단지 내의 2 bedroom 콘
도 3채 매매. Total 매매가 46만불.
현찰 매매 (자금 확인 필요) 한달 순수익
\$4300. Cash 자금 있으신분으로 Serious
inquiries only.
문의 703-244-3453

사업체 매매

코인 런드리 사업체 매매
실버스프링, MD
202-494-3653

1. DC-델리, 조지타운 대학근처,
단독건물 AP 19만
2. VA-한국분식점, 사평물내
매니저운영중 AP 50만
3. VA-월남식당, 대로변, 높은매상 AP 48만
4. MD-KBBQ 식당, 좋은시설,
대로변 쇼핑센터 AP 35만
5. MD-치킨전문점, 좋은상권, 초보자 운영
가능, 초대형 쇼핑센터 AP 40만
▶이덕주 (703) 303-8003

1. 메릴랜드 리커스토어
4백만불 건물 포함, 매출 연 2백2십만불,
인벤토리 40만불
2. 볼티모어 뷰티 서플라이
10만불, 인벤토리 20만불
3. 볼티모어 뷰티 서플라이
5000 sf, 가격 15만불, 고정정식
4. 커피샵/디저트 사업 시작하실분
단독건물/건물구입 1백8십만불
5. 서자장 하실분
5백5만불/2백만불/8백9십만불
▶703-928-5990

1. 애난데일 실내골프장, 최적의 장소
3천 & 6천 sf. Safeway 건너편, 높은 천정
2. 애난데일 식당. Buyer가 자리 찾고 있음.
2nd Generation 비즈니스 원함,
타이 음식점 예정

3. Falls Church VA 치킨 프랜차이즈 식당
\$20만
4.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근처
Bakery or K BBQ 들어갈수 있는 자리,
리스 space 5,700sf, 1층
5.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태권도장한
자리, 2,700sf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DC 상업용빌딩 w/컨비니언 스토어
\$1.75M 코너랏, 단독 빌딩 유니언마켓
근처, 계속 개발중인 지역, 강추!
2. 애난데일 236 대로변, 2층 25,000sf
리스 스페이스, Bakery, 식당, Beauty
store, 실내골프장, Great parking
3. 급구! 애난데일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
바이어 대기중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스시집 매매
워싱턴 DC, 주6일 오픈, 월 순수익 2만5천
렌트 \$5,200 (Com Tax 포함)
2. 일본식당 매매
MD 그린벨트 근처, 월 순수익 3만5천,
주매상 3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쿠팡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버지니아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직원 모집
-매니저
-자격: 회계사 자격증 / 관련 분야 3년 이상
-문의 및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20/h 컴퓨터, 영어 가능자
-취업 영주권 스폰서 가능
Resume: annandalecpa22@gmail.com
문의: 571-459-8109

롯데 플라자마켓 스텔링 사무직 직원을 구함
-모집분야: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
-지원자격: 컴퓨터 사용 가능한분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접수: fdm1@lotteplaza.com
▶문의: 703-817-6312

K MARKET 직원 모집
-모집분야: 업소 관리 (경력자 우대)
-지원 지역: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가능한분
-지원 방법: Customer Service로 문의
이력서 이메일 제출
-접수: accounting@kmarketusa.com
▶문의: 703-507-2020

스텔링 롯데 마트안에 위치한 금산인삼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분을 구합니다.
-판매하실 여자 직원

-주 40시간, 주말 가능 하신분
문의: 929-400-3934

퍼스트 홈케어에서 직원 모집
-간병인 / 코디네이터
▶문의: 571-549-6789

미디어 중앙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광고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포토샵,
프리미어
문의: 703-281-9660
이력서: kdclass2018@gmail.com

프렌즈 데이 케어에서 직원 모집
-본사 스프링필드: 한국 간호사
-리치몬드, 뉴포트: 사무 직원,
코디네이터, 방문 간호사
문의: 571-424-7527/8

치과 조무사, 리셉셔니스트 직원 모집
-월, 화, 목, 금 8시-5시 근무
-무경험자 시간당 \$20
▶이력서: naturadent@gmail.com

현스 홈케어 서비스 간병사 모집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CNA 교육 지원
(시험응시료 1회 지원, 취득시 추가 혜택
제공)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안정적인 근무배정 및 경력관리 지원
▶703-507-2492

첼트리 러브랜드 홈헬스 사무직 직원 구함
-경력 무관
-이중언어 필수, 풀타임 가능자
-건강보험, 401k, 유급 휴가 제공
▶문의: 703-657-0944
▶이력서 이메일: account1@
loveandhomehealth.com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hr@worldbankcard.net

탐여행사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센터빌 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니
다.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경험자, 무경험자도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 구함
-사무 보조원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
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ih.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 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트타임 직원 구함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프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식당/식품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직원 구합니다.
-찬도 / 서버
-문의: 201-407-5840 (문자)
이메일: hojin.choi@annangol.com

SuperMax Warehouse에서 근무하실 직
원을 모집니다.
-수산 및 야채 구매 보조 (트레이닝 가능)
-유통업계 사무직
(경력 불문,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가능자)
-근무장소: 첼트리 VA
문의: 703-665-2162 (마이클 임)
Email: info@theglobalfood.com

애난데일 분식집 만두랑 김밥이랑
주방 쿡, 주방 헬퍼 구합니다.
김밥 싸실분, 파트타임/풀타임
703-625-7080 / 703-642-8668

애난데일 명품 제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시니어 데이케어 시설 긴급 매매

센터빌 한인타운 중심가,
교통 편리한 곳에 위치한
어덜트 데이케어 시설을
인수하실 분을 찾습니다.

• 약 6,000 sq. ft. 규모
• 최대 100명 수용 가능
• 5년 장기 렌트 계약
• 시니어 데이케어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장비 완비
• 즉시 운영 가능한 최적의 환경,
별도의 투자 없이 바로 시작 가능

문의: 571-278-8811

오래된 전문가를 믿으세요!

미셀 3D 눈썹

대박 \$95 눈썹·아이라인 (1회)

• 오래된 눈썹 색수정 • 유지기간 2-3년
• 진짜 아른가요? NO!! • 20년 경력

■ 여자눈썹
■ 아이라인 (2회)
■ 남자눈썹 (2회)
■ 입술 (2회)
■ MTS (재생) (2회)
■ 고주파 물광 스킨케어
■ 앞머리, 뒷머리 가르마 타투로 채워드리
■ 뭉에 나는 가려운 점 빼드립니다.

571-432-7108

6Days OPEN / 월-토요일 오픈 / 당일 예약 가능

(설악가든 근처, 가까빠가 마용실 안에 위치)
4542 John Marr Dr. #A, Annandale, VA 22003

직원 구함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미디어 중앙 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미디어 중앙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영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폴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 / 건강보험,
- 내셔널 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 / 파트타임 모두 가능
▶571-991-4172

세탁/얼터레이션

미래형 세탁 체인 사업에서 함께 성장하실분
모집
-마케팅, 세일즈 매니저
- 테일러, 캐쉬어
- 웨딩드레스 전문가 우대
*Pony Fabricare, Fairfax VA
문의 : 301-404-0701

픽업 스토어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빨래 깨끗이 빨아줄 공장을 찾고 있으며,
A급 스파넷 필요하신분 연락 바랍니다.
703-966-9072

기타 구인

InCourage Martial Arts에서 태권도 사범
님을 모집합니다.
Email 주소 :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 571-243-7027(text 가능)

스파에서 바디 필링 하실분 구함
-여성분, 유경험자, 무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가능)
-스테포드, VA
문의 : 540-368-9699

애견 그루밍 선생님 구함
알렉산드리아, 레스톤 지역
givingtree.alison@gmail.com
▶문의 : 571-660-8182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맥클린 단독 주택 아래층 only 렌트 \$2,300
방1, 화1, 거실, 랭리 HS, 워크아웃
▶703-642-6342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 \$7,995
(알링턴 2마일, DC 7 마일)
전체 3층, 8베드룸과 8베스. 전체 8000 sf.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1층과 2층 (방5)만 쓰실분 또는 아래층(방3)
만 쓰실분도 가능
문의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렌트 \$6,000
방5, 화4.5, 4800sf, 모든 가구 + TV포함
예촌 근처, 주재원 대환영 !!!
▶703-919-0472

센터빌 타운홈 렌트 \$3,200
방3, 화3.5, 2 Car Garage, 엔드 유닛,
나무 마루, 넓고 밝은 리빙룸, 탁트인 부엌과
리빙룸,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펜스가 있는 뒷마당, Visitor 파킹 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비엔나 타운홈 \$3,100
방3, 화2, 전체 마루, 옥튼 하이스쿨, Mosaic
EI, RT 123/29/50/88
▶571-239-6054 (문자)

페어팩스 코스코엠티타운 홈 \$4,000
방3, 화2.55, 차고2, 2019년,
RT 66/50/286/29
▶571-239-6054 (문자)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렌트 \$2,400
방3, 화2
▶703-642-6342

3년된 페어팩스 콘도 \$2,100
방1, 화1, Garage, (구)Hmart 건너편
▶703-642-6342

페어팩스 콘도 렌트 \$2,100
방2, 화1, Den, No Carpet, 물, 가스, 전기 포
함, 교통 편리, 밝고 조용함
▶703-919-0472

애난데일 H 마트 옆 콘도 렌트, \$2,400
방3, 화2, 유포(전기별도) 9월1일 입주 가능
703-350-1986

애난데일 콘도 렌트 \$1,700
방1, 화장실1, 넓고 밝은 리빙룸, Updated
condo 남향, 밝고 깨끗.
발코니. 세이프웨이 건너편. 교통 편리.
물값, 개스 값 포함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렌트 \$2,200
방2, 화장실2, 뒷층에 loft 있음
(방 또는 사무실 가능), 나무 마루, 넓고 탁트
인 고급스런 부엌, 9ft Ceiling, 발코니, Gate
Community, 전용 파킹 2개, 밝고 예쁜 콘도
저렴한 렌트비, 1,310 sf
▶703-477-3114

방 렌트

애난데일 K마켓뒤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페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타운하우스
3층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편리한 교통,
여성분 환영 (대학생/직장인)
703-625-3712

센터빌 타운홈 방 렌트
방1, 화1, WIFI, 주차, 조용한 여성분
571-239-6054

애난데일 설악가든 근처 방 렌트
조용한 동네 싱글홈, 1층 원룸 스타일
출입문 별도, 화, 샤워, 냉장고, 세탁기
간단 취사 가능,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애난데일 싱글홈 방하나 또는 방 2개 렌트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방, 샤워룸,
조지메이슨 학생 환영
571-229-7124 (문자요망)

방 렌트합니다.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비엔나 타이슨 지역 화장실 딸린 방 렌트
새로 수리한 반지하, 남자분 환영
703-395-4380 (메세지 남겨 주세요)

웨스트 스프링필드 고교 옆 지하전체 렌트
워크아웃, 남 싱글분 환영
202-256-4981 (문자)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렌트
큰 방1, 작은 방1,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시루앞 방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여성분 환영
703-973-812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에버그린 오피스 사무실 렌트
월 \$500
문의 : 703-677-1889

워싱턴 DC 중심가 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문의 : 703-231-5572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1,700
나무 마루, Newer Windows, 새 페인트, 계
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703-477-3114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
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부동산 매매

콘도매매 \$345,000
애난데일 콘도 방 2, 화2, 국 파킹
▶703-642-6342

웃브리지 타운홈 매매 \$469,000
방3, 화2+1, 업그레이드 많이 된 집
▶703-919-0472

1) 우드브릿지 타운홈 \$569,900
방3, 화3.5, 2 Car garage, 새 단지, 밝고 환
한 집, 2011년, Baywindow, 숲이 보이는
넓은 데크, Parking lot 6대, 새 카펫, 새 페인
트, 업데이트된 부엌 (새 냉장고, 새 스토브,
새 전자렌지) 넓고 고급스러운 Granite,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2) 우드브릿지 콘도 \$229,900
예쁘게 업데이트한 콘도, 새 페인트, 새 가
펫, 세탁기 및 건조기 집안에 있음. 밝고 환한
콘도, 계단 없는 뒷뜰 출입 가능, 리모델링한
화장실, 리모델링한 부엌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 저렴한 콘도 Fee
▶703-813-8949

1) 폴스 처치 싱글홈 \$1,710,000
방5, 화4.5, 3902 sf, 2011년 레노베이션,
맥클린 하이 학교
2) 알링턴 싱글홈 \$1,999,000
방5, 화6, 4275 sf, 2026년 신축 건물,
RT-50에서 가까운 지역
▶703-486-6082

1) 센터빌 중장교회 근처 싱글 \$1,050,000
방3, 화3, 5 에이커 전원 주택, 최신 수영장
2) 레스톤 싱글홈 \$855,000
방7, 화3.5, 워크아웃 부엌, 차고 2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3) 헌돈 럭셔리 타운 \$850,000
방3, 화3.5, 차고 3
▶703-489-6926

1) 맥클린 Rotonda 콘도 \$499,000
방2, 화2, 남향, 하드 우드, 주방/욕실 업데
이트, 삼성 스마트 가전, 게이트 커뮤니티, 실
내, 야외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테니스, 피
클볼, 타이슨스 코너 인근
스프링힐, 쿠퍼미들, 랭리 하이스쿨 학교
2) 첼들리 하이 타운홈 \$819,000
방4, 화3.5, 차고 2, 밝고 넓은 앤드유닛, 오픈
플로어 플랜, 하드 우드 바닥, 그레이트라이트
주방, 데크 & 울타리 있는 뒷마당, 풍부한 자연
채광과 실용적이고 넓은 공간, 편리하고
쾌적한 주택, 넓은 3층 범프아웃 구조, 지하
층 4번째 침실 & 풀욕실
3) 애쉬번 럭셔리 타운 \$919,000
방4, 화3.5, 차고2, 최고 학교, 2015년,
3660sqft, RT50/66/267, 멀레스공향,
교통요지
4) 애난데일 싱글 \$720,000
애난데일 중심, 방3, 화2, 0.23acre, 넓은
마당/창고, 교통 편리, 생활 편의 시설,
495/95/Backlick Rd
5)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고 1, 1788sf, 집전체 LVT 마
루, I-66, 루트 29 & 15 접근 편리, 쇼핑, 식
당 가까운 좋은 위치
▶571-239-6054

1) 페어팩스 싱글홈 \$1,500,000
방6, 화5, 차고2, 2018년, 로빈슨 HS, 좋은
위치에 전체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2) 페어팩스 싱글홈 \$1,400,000
방4, 화3+1, 차고 2, 2000년 집, 전체적으
로 아주 잘 가꾸어진 집
3) 비엔나 싱글홈 \$1,100,000
방3, 화3+1, 차고 2, 1999년 집, 타운하우
스 가격으로 싱글 하우스 구입
4) 센터빌 타운홈 \$873,000
방3, 화3+2, 차고 2, 2022년 지어진 집,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703-899-8999

1) 알렉산드리아 콘도 \$425,000
올드 타운, 아주 좋은 위치, 방1, 화1, 4층

로얄층, 편리한 layout
2) 브리스토 타운홈 \$679,000
Victory Lakes 단지내에 있는 관리 아주 잘
된 타운하우스, 교통/생활 편리
▶703-625-9909

클립톤 콘도 \$379,000
호수를 품고 있는 맛있는 단지, 방2, 화2, 완
전히 업데이트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 없는 1층,
H마트 1분 거리
▶703-813-8949

1) 센터빌 타운홈 \$595,000
방3, 화3.5, 2 assigned parking
지붕, 부엌(2024), 욕실(2026), HVAC 등
업그레이드된 집
2) 클립톤 싱글홈 \$1,120,000
방4, 화3.5, 집 전체 수리 많이 된 집
3) 비엔나 콘도 \$339,000
방1, 화1 + 덴, 비엔나 중심 위치, 전체 마루,
넓은 데크, 가스/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703-919-0472

1)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
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 sf
▶703-231-5572

사업체 매매

스시가게 매매 합니다.
-첼들리 한국마켓 내, 좋은 가격
(856) 283-5148

1) Alexandria 상업용빌딩
\$2밀리언 / 4,500sf / 2 Tenants
비어 & 와인 / 컨비니언 & 픽업
2) DC 상업용 단독 빌딩
\$160만 / 4,700sf. 1/2 acre lot
Beer & Wine W/ 컨비니언 스토어
▶703- 642-6342

1) Shabu 식당 \$12만
Fairfax 카운티, 잘 꾸며져 있음
Good Parking!
2) 카페 + 밀러 2,500 sf \$14만
알링턴 카운티 변화가. 일식당 바꿀수있는
최적의 장소! 근처 경쟁이 없는 지역!
3) 애난데일 식당 3,000sf
4) 알링턴 3,000sf
컨비니언 스토어 w/빌딩!
\$85만! Best Price!
5) Fairfax 한식/분식 하기좋은 식당!
\$18만
▶703- 642-6342

페어팩스 20년된 미장원 \$7만
w/Great Parking, 주인 은퇴함
▶703-642-6342

1) DC 유니온마켓 근처, 3천sf
단독빌딩! 컨비니언 운영중
근처 재개발중인 투자가치
탁월한지역 \$1.7밀리언
2) 타이슨스 근처 1,800sf Lease Space
월 \$4,800, I-5 zoning
3) 애난데일 리테일 Lease
Space 1천-6천sf, 236 선상
(703) 642-6342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앗간/반찬/잔치음식 전문점



낙원떡집

케이터링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각종 행사
- 백일/돌잔치/생일 음식
- 잔치 음식
- K-Food & Hibachi Food
- 반찬 전문

Coming Soon

각종 떡, 단체 도시락, 김밥 주문 받습니다.

김밥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각종 반찬 만들어 드립니다.

참기를 짜드립니다. (기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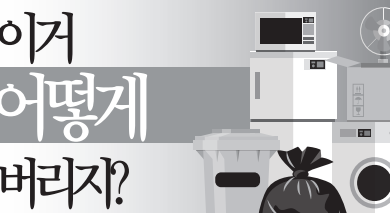
"매장
식사 가능"



703-505-7766

7412 Stream Walk Ln.
Manassas, VA 20109 (Oh! Market 안에 위치)

정크 빨리빨리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직원 모집

미디어중앙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편집/광고 디자인 0명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이너, 포토샵, 프리미어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kdclass2018@gmail.com

미디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미디어 중앙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구인/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1)주매상 \$2만5천, 주5일 NW, DC. 2,500sf, 렌트 \$5천/월 2)본촌치킨, 주매상 \$3만5천 3천sf, 대형 쇼핑 센터, 편리한파킹 3)애난데일 한식당, 4천sf \$15만, 굿 파킹 4) DC바/식당,바이어 대기중, 연락바람! DJ Lee (703) 303-8003 1. DC-델리, 조지타운 대학근처, 단독건물 AP 19만 2. VA-한국분식점, 샤폡물내 매니저운영중 AP 50만 3. VA-월남식당,대로변, 높은 매상AP48만 4. MD-KBBQ 식당, 좋은시설, 대로변 쇼핑센터 AP 35만 5. MD- 치킨전문점, 좋은상권, 초보자 운영 가능, 초대형 쇼핑센터 AP 40만 ▶이덕주 (703)303-8003 페어팩스 일식집 \$50만 1년 순수익 \$20만, SBA융자 가능 ▶703-496-4989 성업중인 픽업스토어 매매 스타포드 \$6만불 픽업 스토어건물 매매 \$42만불 Tel: 703-231-5673 **미장원 급매 5일 영업, 월 순수익 \$6,000, 알링턴 VA, 좋은동네, 발전 가능성 많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1. 애난데일 실내골프장, 최적의 장소 3천 & 6천 sf, Safeway 건너편, 높은 천정 2. 애난데일 식당. Buyer가 자리 찾고 있음. 2nd Generation 비즈니스 원함, 타이음식점 예정 3. Falls Church VA 치킨 프랜차이즈 식당 \$20만 4.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근처 Bakery or K BBQ 들어갈수 있는 자리 리스스페이스 5, 700sf, 1층 5.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태권도장한 자리, 2,700sf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DC 상업용빌딩 w/ 컨비니언 스토어 \$1.75M 코너랏, 단독 빌딩 유니언 마켓 근처, 계속 개발중인 지역으로 강추! 2. 애난데일 236 대로변, 2층 25,000sf 리스스페이스, Bakery, 식당, Beauty store, 실내 골프등, Great parking 3. 급구! 애난데일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 바이어 대기중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스시집 매매 워싱턴 DC, 6일 오픈, 월 순수익 2만5천 렌트 \$5,200 (Com Tax 포함) 2. 일본 식당 매매 MD 그린벨트 근처, 월 순수익 3만 5천, 주매상 3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 박 성업중인 세탁소 (Dry Cleaners) 매매 - 최적의 입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 센터내 위치 - 30년 안정 운영, 많은 단골 고객층 확보 5마일내 경쟁업체 무, 무한한 성장 잠재력 - 완벽한 설비 시설 - 매매가 협상 가능, 방문 환영 - Manassas, VA (문의) 한국어 : 703-678-9790 영어 : 703-499-2466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 고정 단골 손님 많음 - 월세 \$2500, 월 순수익 \$6천이상 - PT 일하실분 구함 703-907-9541 (문자 주세요) 1. 콰티코 VA, 군 부대안 3층 상업용 빌딩 5,300 sf \$1.1M 2. 페어팩스 VA, 4층 빌딩 13,000 sf 임대 완료 \$4.5M 3. 알렉산드리아 VA 커머셜 Lease Space 6,500 sf, 1층 대로변, 포토맥야드 근처, 편리하고 넉넉한 주차, DC에서 10분 4. 타이슨스 VA, 커머셜 Lease Space, 1,800sf ▶ 메가 703-534-4989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 웃수선 전문, 저렴한 렌트비 (\$3,000/월)	스타포드 문의 : 703-231-5572 1. 치킨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식당 4,000sf, \$20만 2. Tysons 차고 1,800sf \$4,800/Month 3.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중고 매매 / 기타 05년 오트세이 투어링 매매 \$2,490 한 주인, 뉴 타이어, 상태 매우 양호 703-646-0808 / 919-571-0089 세탁 장비 및 카운터 가구, 창고 대방출 - 보일러, 콤팩트샤, 배급 - 셔츠 프레스, 상코샤 더블 벅 - 자켓 프레스, 팬츠 프레스 등등 - 카운터 가구, 피팅룸, 실 장, 기타 소품 Paul Kim : 301-404-0701 60차 성경통독 집회 - 일시: 10/12일(월) 오전 8시 ~ 오후 8시 - 장소 : 에즈라 선교 센터 6150 Finchingfield Rd. Warrenton, VA - 문의 : 540-347-1188 케어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10/12 - 10/16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대입컨설팅/레슨 SAT, ACT, SSAT, 토플지도, 대입컨설팅 703-499-3393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특수 아동, 30년 경력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건축/페인트/마루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자봉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자궁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애버샤인 건축 키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덱,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선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레드론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 & Out), 덱 메인테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외모든공사,	주정부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 & 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TSP/연금/401K/IRA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703-688-2645 바른길보험 조정사 주택부터 상가 비즈니스까지, 보험약관이 보 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한인 공인 보험조정사 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240-659-9286 Paul Kim(수봉) 종합보험 메디케어·생명·연금·자동차·집·사업체· Worker’s Com 보험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합니다! ▶703-223-6961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 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정문기 메디케어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 가스 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래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 장비, 케리 아웃 장비 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 프, 정수 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 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수아미용 타투 두피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눈썹, 아이라 인, 입술, 속눈썹, 헤어 생장술, MTS (미백 주 름개선 세럼), 스킨 케어 ▶443-722-5925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 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백금, K14, K18, 셋팅전 문, 결혼예물, 돌반지,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내 ▶410-480-2477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 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클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 팀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루워 락스 ▶703-967-4155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홀스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 히터/물 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셉 펌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 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전문 수리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달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페 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선택, 확실한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 이사, 타주 이사 (차량 운송) ** 무료견적, 합리적 가격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포장, 자체 창고보관서비스, 한국 화물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 보험, 확실한세관 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테코등 ▶571-594-4080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 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	---	--	--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닛바탕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 ·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Carrier, Lennox 전문딜러

AWARDED
Porch HomeAdvisor BBB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 · 기술력과 서비스 · 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 ·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목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텍,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궤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궤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보석



골든 듀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궁금한 기사
미디어 중앙안에
있습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한의원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텍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경희한국한의원

경희대학교

3인의 한의사가 진료하는 원인치료 전문 한의원

워싱턴 DC 일등 대한민국 한의원

“침, 한약 잘하는 한의원”

240.880.8817 / 301.709.7707

JGL Construction Inc.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 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텝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Homes Plumbing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저

◆ 워터히터 / 물세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씽크대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License / Insurance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미디어 중앙

궁금한 기사 미디어 중앙안에 있습니다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블라인드 / 틈트

100% 한국산 프리미엄 자재

토탈 블랙아웃

Total Blackout LLC

미국 동부 공식 브랜치

블라인드·커튼·스마트틴트 (PDLC)

무료 견적 방문 상담

703-600-9031 Young Lee

6305 Meadow Glade Ln., Centreville, VA 20121

totalblackout4u@gmail.com

공장직영

고품질 시공

합리적 가격!

스마트틴트 (PDLC)

스위치 ON/OFF

OFF (프라이버시)

ON (투명)

블라인드

커튼

차바라 (폴딩 도어)

자동차 틈트

www.worldblind.co.kr

Vsion Inc. 미국 동부 공식 브랜치

스마트틴트 (PDLC) 전문

www.visioninc.co.kr

낱말퀴즈 & 스도쿠

낱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 어느 모로 보나 아름다운 사람. 여러 방면에 능통한 사람. 공부면 공부, 노래면 노래, 운동이면 운동, 그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이었다. □ 방□□ (3)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림.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 대□□□ (6) 정하여진 거리를 네 명의 선수가 배영, 평영, 접영, 자유형의 순서로 해엄을 쳐 속도를 겨루는 경기 (8)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어 넣고, 열큰하게 갇은양념을 하여 끓인 국 (10) 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 영화는 ~로 시집을 갔다 (11) 명태의 창자로 담긴 젓 (13) 고인이 되었음.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 (15) 조선 시대,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 봉이 김 ~ (17) 조선 시대에,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19)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 (20) 사춘기에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 (22) 싸움에 이겼을 때 울리는 북 (26) 보통 때에는 얼마 먹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 밤. □나□□ (27) 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음. ~의 대기록을 세웠다. 전□□□

세로열쇠

(1) 조그만 돌 파위를 손에 쥐고 멀리 내던지는 일 (2) 아름다운 여자를 이용하여 사람을 꾀는 계략 (4)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5) 올림픽 파위의 체육 경기에서, 경기장에 켜 놓는 햇불 (6) 혼인할 자리. 마땅한 ~가 없다 (7) 방을 밝게 하기 위하여 낸 창문.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달님은 ~으로 은구슬 금구슬을 내리는 이 한밤/잘 자라 우리 아가 (8) 유월에 잠은 새우로 담긴 젓. 이 무렵의 새우가 제일 맛있다고 한다 (9) 통나무를 길쭉하게 잘라서 쪼갠 뿔나무 (10) 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는 두 꼭짓점을 잇는 선분 (12)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 (14)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짓 (16) 말을 매우 능란하게 잘하는 짓 (17)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힘들어도 절대 ~하지 마세요 (18) 공상스럽고 처량한 행동이나 태도. ~을 떨다 (19) 죄인을 죽이는 일. ~를 내다 (21) 13개의 줄과 50개의 별이 있는 미국의 국기 (23)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높이 만든 대. 오두산 통일 ~ (24) 소리 없이 빙국이 웃음 (25)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

스도쿠

6				9	2		5	8	
						8			
		3	1	5		4			6
9					4				2
								4	
				2	6	9		3	1
				1		6			
					8	3	9		
5	6				9		4		



자료제공 = 울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1	4	2	6	7	3	9	5
5	9	6	3	8	4	2	7	1
7	2	3	9	5	1	6	8	4
1	3	8	6	9	2	4	5	7
9	4	7	5	1	8	9	6	3
2	5	6	7	4	3	8	1	9
6	9	6	2	4	7	5	1	3
4	7	1	8	3	6	5	9	2
3	8	5	1	2	6	7	4	9

성공 비즈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6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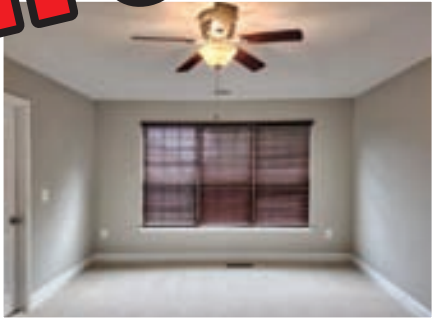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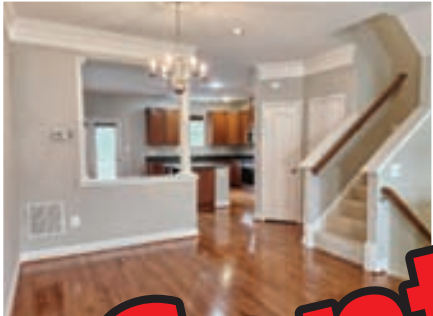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특점

Woodbridge 타운홈

새 단지, 2011년산, 2 Car Garage, Bay Window, 숨이 보이는 넓은 Deck, 방 3, 화 3 1/2, Parking Lot 6대, **\$569,900**
밝고 환한 집, 새 카펫, 새 페인트, 업데이트한 부엌 (새 냉장고, 새 스토브, 새 전자렌지), 넓고 고급스러운 Granite,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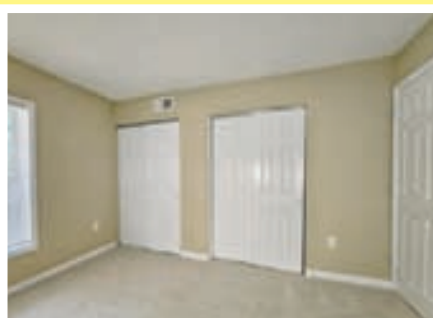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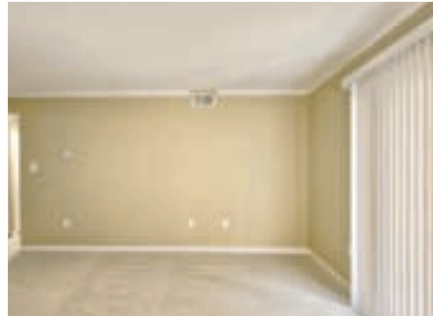


Contract

특점

Woodbridge 콘도

예쁘게 업데이트한 콘도, 새 페인트, 새 카펫, 세탁기 및 건조기 집안에 있음, 밝고 환한 콘도, 계단 없는 뒷뜰 출입 가능, 리모델링한 화장실, 리모델링한 부엌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 저렴한 콘도 Fee **\$229,900**



특점

Woodbridge 콘도

방3, 화2, 넓고 밝은 엔드유닛, 새 페인트, 새 카펫, 업데이트한 부엌과 화장실들, 넓은 거실, 세탁기 및 건조기 있음, 넓은 Deck **\$325,000**



Contract

특점

Annandale 오피스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스, 교통편리, 넓은 주차장, 애난데일 중심가 **\$280,0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